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003. 5호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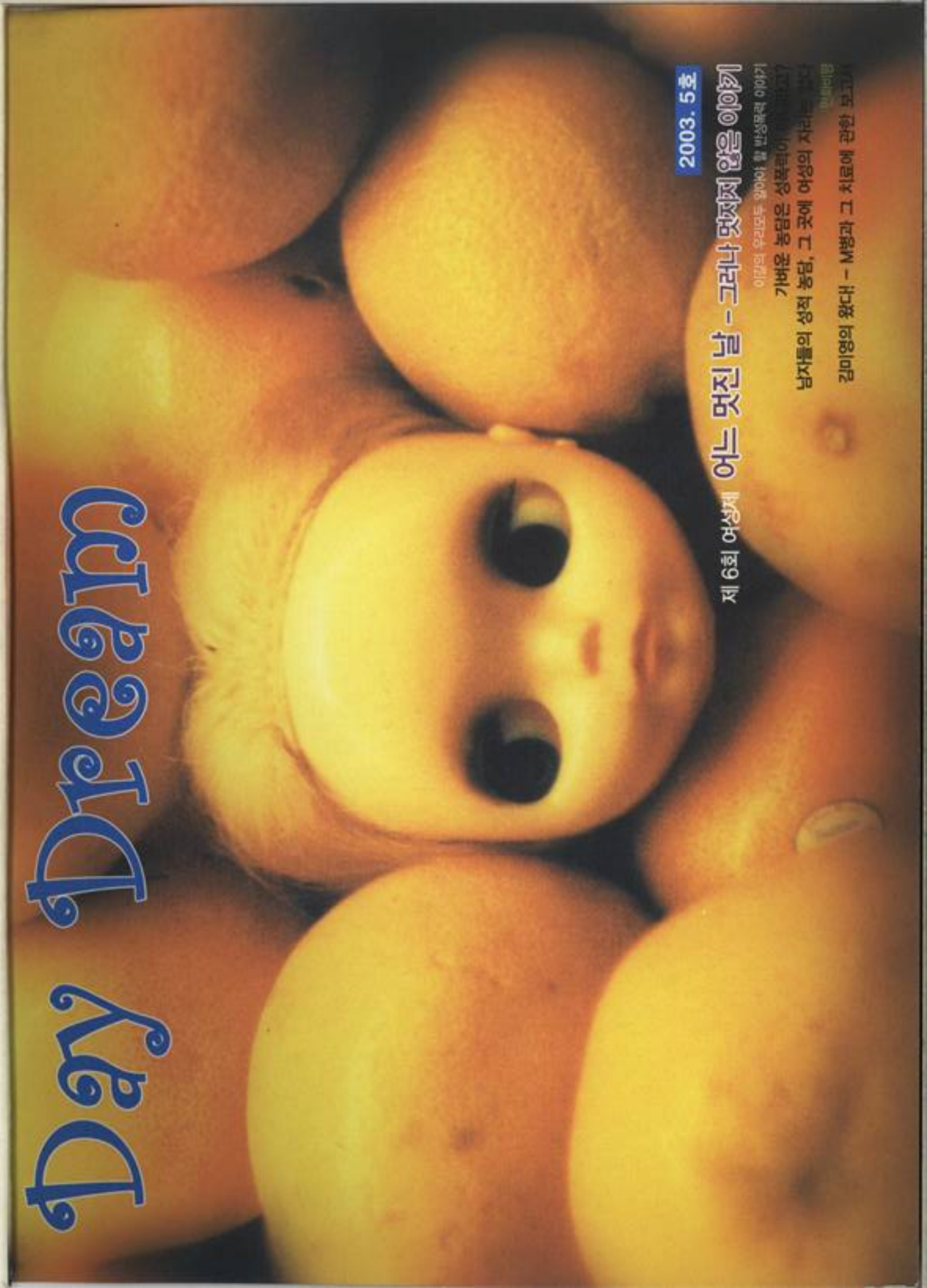
이길의 우리모두 일해야 할 반성문력 이야기

기벼운 농담은 성폭력이 아니다

남자들의 성적 농담, 그 곳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민혜리

김미영의 왔다 - M병과 그 치료에 관한 보고서



OPEN

9월 6일

한국 비즈공예의 Leading 브랜드
BEADSBORN
신촌점

무한한 성장가능성의 비즈공예!
비즈본 신촌점은 기존의 구슬공예방과는 다릅니다.

- 한국의 비즈공예를 선두해 온 Beads art fashion leader "BEADSBORN"의 체인점입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회사인 일본의 Toho사로부터 비즈공예의 최신 트렌드와 교육과정을 선별하여 국내강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 다양한 비즈 재료들과 완성품들이 수강코스별, 재료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비즈공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초급부터 강사코스까지 체계적인 강습을 해 드립니다.



수강과정안내

이래의 시간중에서 언제라도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분	과정	수강료	작품수	강의시간
비즈공예	초·중급	100,000원	25	월~금 09:00 ~ 22:00
	고급	150,000원	8	토(직장인반) 09:00 ~ 22:00
직조공예	초·중급	100,000원	10	월~금 09:00 ~ 22:00
	고급	150,000원	5	토(직장인반) 09:00 ~ 22:00
강사코스	전문강사과정		6회수강	수요일 18:00 ~ 19:00 강사증발급

- 재료비는 별도
- 해외강사 초빙시 수강 기회 부여

오픈기념 행사안내

1. 선착순 200명 비즈공예용 타올 증정
2. 선착순 200명 무료지도 1회 실시 (재료비 무료)
3. 행사기간내 수강 선착시
 - 재료비 5% 할인 혜택
 - 수강료 10% 할인 혜택
 (9월 6일 ~ 9월 30일까지)



비즈본 신촌점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1-28 문의전화.(02)363-2478 Fax.(02)364-2478

CONTENTS

02 여성제 여는글

04 2003 여성제 프로그램

07 6회 여성제 | 아내폭력

아내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 8

가정폭력 : 가족 해체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 9

A Woman's Daydream -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래서 더 애절하고 차절한 · 15

17 6회 여성제 | 학내 성폭력

성별화된 폭력 (Gendered Violence)과 글로벌 시민의식 :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 18

연세대학교 반성폭력학칙 공청회를 마치면서 · 22

연세대 교수 성폭력 사례들 · 24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교수성폭력, 그 특수성에 대하여 · 28

학내 여성지도 · 30

35 6회 여성제 |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무지와 편견 · 36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으로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바란다 · 38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한국 사회 · 40

42 어느 멋진 영화제 일정

45 새울터란?

46 만화 비평 | 김미영의 왔다 - M병과 그 치료에 관한 보고서

48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과연 러브하우스에서 그들은 행복할까

50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

가벼운 농담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남자들의 성적 농담, 그 곳에 여성의 지리는 없다

평화롭게 파란 하늘,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천천히 기지개짜는 게으른 구름,
평화롭게 흘러가는 하루,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그러나,
평온으로 찰해진 일상의 껍질을
한꺼풀 벗기자마자
밟아뜨리는 검푸른 상처와 조용한 비명들,
잊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부재하기를 소망하는 기억들,
그렇지만 눈감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엄연히 존재하는, 그 아픈 기억들...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는 강연, 영화상영, 자보전, 전시회 등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학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때로는 느끼기조차 힘들 만큼 폭력이 일상화되어있는 우리들의 '어느 멋진 날'에 균열을 내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일그러진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당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긴 소매옷을 입고 한낮을 뛰어다니도 그리 덥지 않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봄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집니다. 정말 '따뜻'은 느낌 어느 부분을 때어 내어도 한결같이 똑같은 색깔일 것만 같은 맑은 하늘에서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눈부시게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서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너무나 평온하여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느 멋진 날, 그러나 그 눈부심에 가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단지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수많은 폭력들을 경험합니다.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M에서나 보았을 법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 그것이 직접 나에게 닥치지 않더라도, 그것이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선가 어느 여성들은 무수한 폭력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 주위에 늘 잠재하고 있지요.

제6회 여성제를 시작하며...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폭력'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때론 느끼기조차 힘들고, '폭력'이라 이름 붙이기조차 무색한 까닭이겠지요. 혹은 너무 무겁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어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해버리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해도 그 경험과 느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쩌면 피해가기 힘든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폭력'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일상화된 폭력을 드러내 보이며, 폭력의 경험과 느낌을 말하려 합니다. 너무 암울한가요? 그러나 나의 경험과 느낌을 풀어내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의 성격을 분석해보는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폭력에 대항하고 근절시킬 방법을 모색해 본다면 그리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는 9월 29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하네 폭력', '성매매', '성폭력'을 주제로 하여 학내 곳곳에서 강연과 영화 상영이 진행되고, 세 주제와 관련된 자보전이 민주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단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한데 모은 영화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성제를 통하여 일상화된 폭력에 좀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함께 폭력이 없는 세상을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어느 멋진 날

-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2 0 0 3

여성제 program

첫째 날 9월 29일(월)

여성제 개막식

퍼포먼스 "Home, Sweet Home" - 흐름

9월 29일 월요일 12시 학생회관 앞

소망나무 소망달기

잊고 싶은 기억을 한데 모아서 날려버립니다

여성학 도서 / 여성주의 매체 전시회

여성제 기간동안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족/민족/국가주의의 구조

강연자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자)

9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2 0 0 3 여성제

둘째 날 9월 30일(화)

'나' 부터 시작하는 성매매 서명운동

9월 30일 화요일 민주광장 한소리화(www.han-sori.org)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언니'들의 목소리

강연자 김성희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9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속에서 '언니'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날 10월 1일(수)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만들기

10월 1일 오후 2시~5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사전 교양을 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여학생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참가 인원은 15명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 하고 비즈공예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 2123-3645, feminist@yonsei.ac.kr

011-9949-7230

성별화된 폭력: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강연자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0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외솔관 110호



2 0 0 3

program

넷째 날 10월 2일(목)

'어느 멋진' 영화제

애니메이션 나의 이야기, 새인지 몰랐던 새 종이인간 이야기, July & Betty, Fly2 the dream, 참나무, aRe yOu theRe?, 상자속의 아이, 퍼스 포페, 바보 흥두 이야기

단편영화 Too happy to die, 이효종씨 가족의 저녁식사, 미친 김치, 저 멀리 여름 숲은, 탐폰 설명서

10월 2일 목요일 6시 위당관 B09호에서 여성 감독들의 애니메이션과 단편을 같이 상영합니다.

전체 상영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 생일이라니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 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니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 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혼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아프고 양투상이가 되어 아팠어요

그가 용임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니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리 했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용임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때렸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글은 청하진 흥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도화사의 문화, 2000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내뽀뽀



아내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한국 속담에 '억자와 복어는 사흘에 한 번 씹 때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이 축적되어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 '선조들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엄청난 마력을 지니고 있지요. 이러한 특성을 저 속담에 비추어 본다면 오래 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남성(남편)은 때릴 권한을 가진 자로, 여성(아내)은 맞아도 되는 자로 인식되어 왔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아내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과 편견들,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부부가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을 통해 아내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고, 여성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강요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폭력 사례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파헤쳐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게 되는데, 이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 폭력은 부부가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부부가 살아가면서 절대 없어야 할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내 폭력이 '범죄'라고 인식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겪었던 까닭이 바로 이 명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안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아내 폭력은 함부로 참견하지 말아야 할 남의 집 가정사로 생각되어 왔지요. 아내 폭력은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은 폭력을 가하는 자, 아내는 폭력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놓이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대화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가정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폭력의 가해자로서의 남편의 행위가 묵인됨과 동시에 피해자인 아내는 계속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때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이 말은 아내 폭력의 가해자 남편들이 아주 즐겨쓰는 말이지요.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맞을 짓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맞을 짓을 했다면 때려도 된다는 권리는 도대체 누가 부여해준 것일까요? 가해자들이 아내를 때리고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때릴 수 있다'는 인식이 굳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정당한 폭력'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 가족 해체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정희진, 성공회대 강사(여성학)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또 하나의 문화 2001) 저자

1. 아내폭력 - 여성인권과 가족주의의 경합 : 가정안에서의 폭력인가, 가정에 대한 폭력인가?

우리사회에서 아내폭력은 1983년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추방을 운동 과제로 내세운 '여성의전화'가 창립되면서 처음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이후 선택(피난처)마련 운동,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운동을 거쳐 아내폭력은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었고, 90년대 한국여성운동이 성 인지적 관점을 획득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는 여성단체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종교 기관, 심리상담 기관, 법률 상담소 등에서도 아내폭력을 다루고 있다.

폭력 가정을 탈출한 아내가 사회적 성취권을 획득하고 고통을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사회의 가족제도, 노동시장,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성문화, 모성, 법 제도 등 여성 억압의 거의 모든 경로를 거쳐야 하는 지난한 경험이다. 아내폭력은 가부장제의 축소(縮減)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원인과 대책도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 동안 아내폭력 문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을 가족과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나의 단위, 휴식처로서의 가족 개념과 가족 구성원간에 차이는 있지

만 그것이 권력 관계는 아니라는 것,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假定)을 전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아내폭력을 '일탈'(비정상)행위로 보면서, 주로 폭력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해왔다.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이때 주로 등장하는 상황들은 가해남편의 의처증, 스트레스, 알코올,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분노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의 원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남편의 행위 자체가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편, 폭력 당한 아내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오랜 폭력으로 인한 폭력의 결과 - 무기력, 보복의 두려움, 자아 의식 상실, 판단 능력 결여, 모순에 가득 찬 폭력 대처 기술 등 피해여성의 상태 - 를 마치 폭력의 원인인양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우리사회의 담론은 남성의 폭력 행동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문화를 지지하게 된다. 구타당하는 아내의 문제(맞을 짓)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연구들은 아내폭력의 90% 이상이 결혼 생활 3개월 이내에 시작된다는 사실¹⁾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아내폭력을 개인 심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성 중립적 관점의 연구들은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사회

고유의 문화적 특성, 즉 가족주의적 가치를 고려하여 되도록 가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주의적 관점이 가족 유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의식 향상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가 크므로 가족을 깨뜨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여성주의적 접근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아내폭력이 대개 자녀학대를 동반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가족 체계의 문제라고 보면서도 '어쨌든 가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에는 아내폭력에 대한 '원칙적', '정치적(여성학적) 접근'보다는 임상적 개입, 특히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사회보다 먼저 아내폭력 추방 운동이 시작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법이 제정되고 나면 여성운동가의 역할은 심리 상담가의 역할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성별 제도(gender)를 고려한 여성주의적 언설이나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언설이나 모두 아내폭력을 문제화하는 이유와 방식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담론에서는 아내폭력이 '집안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이유를 찾을 때, 폭력 사태가 방지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심각하다는 것이고 둘째, 폭력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 셋째,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내폭력이 비정치적 문제라는 전제 아래, 그것이 사회적 이슈여야 하는 이유를 심각성에서 찾고 있다. 폭력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아플 것이라든가 고통을 당한다든가 하는 여성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은 없다. 우리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언제나 아내(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환원된다. 때문에 이제까지 아내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은 주로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자'는 가족 유지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여성운동 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 아내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폭력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⁹⁾ 현재 여성운동 단체들은 아내폭력이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가정의 평화는 사회의 평화¹⁰⁾ 이고, 어린이가 가정에서부터 폭력을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¹¹⁾ 이 같은 시각은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므로 아내가 구타당하더라도 가족이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탈출해서는 안 된다)¹²⁾는 가부장제 세력의 입장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여론은 이 법

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해체한다고 비판해왔다. 평소 친 여성적 활동을 해 온 사회운동가나 언론조차 배리는 남편도 가부장제의 희생양¹³⁾이며 법 제정으로 인한 구타 남편들의 '배신감'을 치유해야 한다¹⁴⁾고 주장하는 등 우리사회에는 아내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남성 중심적 언설이 만연해있다. 아내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족 중심적 접근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논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이 많은 성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족 유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시각은 같은 가정 내 폭력인 아동학대를 한 '인간'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 노인학대를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¹⁶⁾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는 대다수 가정폭력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아동/노인학대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해되지만 아내폭력은 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 시 된다. 그래서 아동/노인학대는 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강조되지만 아내폭력은 부부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비비람은 집안에 들어가고 법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¹⁷⁾는 논리가 강조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에 대한 가족 중심적인 접근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매우 설득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문제시하거나 그로 인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기보다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데 더욱 강조점이 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보다 치료와 교정을 통해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보호와 인권 보호적인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법무부, 1999).

그러나 피해여성이 폭력가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제적인 원인이 경제적 의존 때문인지, 만일 경제적 의존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 현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가족 보호와 여성인권 보호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내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접근이 1) 여전히 여성을 가족 유지의 핵심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2)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모성의 담지자와 남편의 성적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에 문제제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3) 여성의 정체성을 사회적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적 존재로 끊임없이 환원한다는 점에서, 아내폭력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즉 아내폭력이 전쟁, 고문, 조직 폭력 등 일반적인 폭력과 다른 것은 그것이 단지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한다는 점이



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은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문제화하지 않는다면 아내폭력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기존의 담론과는 반대로 성별에 의한 가족 내 남녀의 차별적 지위와 그에 따른 성 역할 규범은 그대로 둔 채 폭력만을 방지하자는 가족 중심적 접근이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아내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가족 유지 책임과 여성의 정체성을 가족에만 관련시키는 가족 내 성 역할 규범 때문이다.

2 폭력 근절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족주의의 구조

2-1 피해여성의 공포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폭력 당하는 아내는 이중의 공포를 경험

한다. 아내폭력은 반복해서 진행되므로 아내는 이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서 두렵고, 모든 폭력은 임의적이므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두렵다. 아내의 공포심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들은 다른 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아프고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최근(1999) 우리사회 조사에서도 아내가 폭력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가 1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¹⁸⁾ 그러나 아내의 공포심은 아내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둘러싼 담론에서 가장 간과되어 왔다. 아내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접근에서는 피해여성의 고통과 목소리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폭력 당한 사

람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유독 구타당하는 아내의 공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참전 군인, 학살 사건 경험자, 폭발물 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공포심은 당연히 그들 개인의 고통으로부터 접근, 치유된다. 그러나 아내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당연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내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 '왜 그런 상황에서도 못 나오는가'는, 단지 피해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폭력 당하는 사람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 방식에서는 사회의 개입 책임이 별로 없게 된다. 고문 등 공적 영역에서의 폭력 피해자나 아동 학대 피해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폭력 당하는 아내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공포를 견디는데 집중시키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망, 신고, 이혼...)을 할 여유가 없다.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이 구속되는 비율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8.5%에 불과하다.¹⁹⁾ 폭력 발생 당시에는 공포를 직접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덜 느끼지만, 집을 나온 상태에서는 공포 경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느끼는 공포의 감정은 극대화된다. 그래서 아내는 탈출했다가도 다시 귀가한다. 집을 나온 상태에서 두려움에 시달리기 보다 차라리 남편을 제 발로 찾아가는 것이 덜 무섭기 때문이다.

18) 29는 '경제적 차질이 어려워서' (17.5%), 39는 '나이나 지위는 때문' (15.4%), 49는 '구타당한 남편에게 자신을 팔 수 없어서' (12.5%) 순이다(정지인, 1999:192).

19)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학』, p. 204

9) 대법원의 양적, 질적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바다. 서울여성민우회(1992), 여성운동(1993),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한국여성학연구소(1997).

10)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중 여성계 최대의 논쟁점이었으며, '여성의안전' 및 '아내폭력'도 성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 우리사회에서 '아내폭력'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여성민우회'의 단체 슬로건.

12) 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 포스터 제목은 '가정폭력은 당신의 자녀에게 전염될 수 있다'였다.

13) 박혜지,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3일자

14) 내일신문, 2000년 3월 29일자

15) 여성운동 세력은 가정폭력방지법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제정되는 것에 반대했다. 우리사회의 '아내폭력' 인식을 고려할 때, 처벌 위주로 법이 제정될 경우 법이 사정(私情)되어 피해여성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이연숙/정은숙, 1999).

16)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20-30), pp. 24-25

17) 가정폭력방지법 입법 중 자민련 반목전 의원 발언,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8:142)



이처럼 아내는 탈출하더라도 남편이 추적하여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실제 사실이다. 아내가 '폭력을 피해 탈출한 것'이 남편에게는 '내게서 도망간 것'이므로 이때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는 여성이 폭력을 피해서 가출했을 때 가장 빈발한다.¹²⁾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아내는 남편을 실제의 능력과 힘보다 훨씬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남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2-2 '가해자'가 되는 피해 여성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무조건 빌기도 하고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기, 고집기, 할퀴기와 같은 '여성적'인 방법으로 맞선다. 그러나 아내의 방어는 종종 '공격'으로 의미화된다. 이 논의는 아내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언제나 동반되는 담론인 '배맞는 남편'의 존재와 연결된다. 특히 아내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 이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된다. 아내는 딸 맞기 위해 남편에게 저항하는데, 이 때 폭력남편은 자기는 안 때렸는데(남편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아내는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하므로 가해자는 아내가 된다.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폭력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폭력은 남성의 본능, 전유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라 폭력 허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의 방어는 정당 방위(fair fight)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공격이 된다. 그러므로 아내폭력에는 정당 방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정당 방위는 남성 중심적 기준으로, 남편에 저항한 아내는 '정당함'의 밖에 존재한다. 혹은 법정 종사자들이 폭력 당하는 아내가 겪

는 폭력의 심각성과 공포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¹³⁾

여성들은 고통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참을 것이 기대된다.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남성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성이 '공격'했을 경우에는 미리 계획된 것, 즉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다. 자기 방어의 사회적 주체, 독립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타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피보호자는 자기 방어 권리가 없다. 피보호자의 안전은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보호'해 줌으로써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남편에게 고마워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도리어 남편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러한 담론에 따라 아내는 '맞으면서 보호받고' 있다.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문화적 고정 관념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 여성의 저항권을 박탈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이고 때리다가 아내가 숨지면 '과실 치사'가 되지만, 아내가 폭력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가 된다.¹⁴⁾ 여성운동단체, 여성주의를 표방한 연구자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학대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담론은 '배맞는 아내의 정신 착란, 인지적 왜곡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었다. 여성이 자기 방어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 '정신 착란'이라고 주장할 때 낮은 형을 선고받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여성은 '인지적 왜곡' 상태에서만 자산을 방어할 수 있으며 남편의 폭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한 여성은 '정신 이상자'가 된다.

남편과 아내의 폭력 행사는 그들이 각자 다르게 처해 있는 가족 내의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폭력은 서로 다른 이유와 의미를 갖는다. 남편은 내가 하라는 대로하라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한다.

2-3 '가정파괴범'이 되는 피해여성

살려본 바와 같이 아내폭력이 일탈이 아니라 규범('정상적')이라는 의미는, 남편의 폭력이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저항 행위가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저항, 특히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저항은 폭력 발생 상황에서 아내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아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지배권은 가족이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폐쇄된 영역일 때 가능하다. 남편에게 아내의 가출은, 자신의 폭력이 노출됨과 동시에 아내가 외부의 자원을 가정에 끌어들이므로 남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내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아내가 먼저(남편의 왕국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여성은 가정에 적합한 존재로 간주되지만, 여성이 가족을 구성하거나 해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폭력을 피하는 것을 폭력 행위, 불법 행위로 본다. 하지만 이 같은 남편의 생각은 주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저항 행위(가출)가 얼마나 불리한지 잘 알고 있다.

법정, 경찰서, 가족 앞에서 남편은 폭력 행위를 사과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족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가를 증명한다. 그러한 노력을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가정 파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게 된다. 남편의 폭력 행위가 가족 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용서 여부가 가족 유지를 결정한다. 이는 아내폭력 정도로는 가정이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즉, 아내가 맞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의 유지를 위해 남편에게 요구되는 책임 수준은 '때리고 사과'하는 것이지만, 아내에게 요구되는 책임 수준은 '맞고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4 가정, 치외법권 지대

경찰 등 주로 남성들로 구성되는 공적 기관들은 '집안 일(아내 폭력)'에 '간섭(처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논리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을 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는 곧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남편의 폭력 행위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폭력남편에게 가족은 치외법권 지대이다. 치외법권 지대는 남의 영역(남의 집안 일)이

므로 남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다. 자기 집에 불을 질러도 형사 처벌이 되는데 '내 마누라'를 때리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러 사무실에 출동한 경우에는 불개입 논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편의 범죄 때문에 경찰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것은, 가정이 한 남성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남성으로 대표되는 가정에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의 개입은 남성들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근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범죄자가 스스로 경찰을 부르고 경찰과 협상해서 경찰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범죄는 '아내폭력' 밖에 없을 것 같다.¹⁵⁾ 이는 남성만이 가족을 대표하고 공권력과 협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폭력 발생 시 이웃 등 외부인이 방문해도 '대표' 접촉한 사람이 남편일 경우 개입이 어렵다.

3 제언: '실질적인' 근절 정책은 무엇인가?

그 동안 아내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 방식은 남편과 아내의 성별 규범(gender)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다. '아내폭력'은 성별 분리, 분업에 기초한 남성 중심적인 가족 제도의 산물이다. 성별에 의한 가족 내 남녀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 규범을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내폭력 경험은 성(性)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회적 대응 역시 피해여성 중심이 되기 어려웠다.

아내폭력은 부부관계의 극단적, 일탈적인

12) 이태현의 '구타를 피해 가출한 후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아내를 공부하던 남편이 학교로 찾아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살해'는 사건이다. 한겨레신문, 2000년 3월 18일자, '불가 아내 대학 도서관 살해'.

13) Bel, Linda A.(1983) 159-196에서 Nay Noddings와 Rosemary Tong의 논리.

14) 99년 이후 피해여성의 남편 살인 사건에서 최근 발생한 신모씨를 제외하고 모두 용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이 없었더라면 일반 살인 사건과 똑같이 취급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 아내의 존재에 따라 유능한 변호사를 '지니니' 여부가 변호사 비용의 차이 방어 논리가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Duven, 1997:103-111).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미묘하게 다른 경향이 있다. 여성 운동의 개입 없이는 피해여성의 입장이 옹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 가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최근 매스컴이 '결가처 이라고 보도한 아내폭력 사건도 피해여성이 배가 드러나고 소장과 같이 현공 상태로 이혼자 가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가해자가 119를 부르기 전에 이웃 주민이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오자, 이웃 차원의 남편은 '나도, 여성의 안전을 아는 사람인데 살아 내기 폭행을 했었으니, 우리도 부부 싸움 중 있지'며 문을 닫았다. 한국여성안전화합(여성)의 논의로, 2000년 5 6월호.



현상이라기보다는 가족 내 남편/ 아내의 성 역할 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이다. 가해남성은 폭력을 아내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남편의 권리와 의무, 아내와 관계 유지 방법 등 남편 역할 수행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해남편이 생각하는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은 모두 아내의 역할 규범 위반과 관련된다. 폭력은 아내의 '원인 제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도리에서 아내가 벗어날 때 발생한다. 개인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가족 제도를 통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성별화된(gendered) 정체성, 지위, 역할, 노동을 수행할 때 아내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맞을 짓'은 인간(여성)이 아내가 될 때만 폭력 이유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아내폭력은 현재의 가족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사소한' 폭력에서부터 범죄에 이르는 극단적인 폭력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내/ 남편의 성 역할 규범이다. 따라서 폭력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아내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피해여성이 남편과 주변의 요구대로 아내 역할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족이라는 권력 관계의 폐쇄 회로 속에서 폭력 발생 지점을 이동, 순환시킬 뿐 폭력 그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여성의 탈출 의지는 아내, 어머니 역할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에 회귀함으로써 폭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성의 가족 내 성 역할 수행이 여성의 인권보다 우선 시 되면

서 어머니, 아내로서의 '도리'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맞지 않을 권리'는 유보되거나 사소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여성의 공포심, 자기 방어, 저항 행위는 우리사회 전반의 성별 규범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의 가족 제도 아래서는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저항 모두가 아내폭력을 재생산하는 셈이다.

가정에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현실과 폭력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규범에 의해서 정상화된다는 사실은, 아내/ 남편 역할 수행이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자연스런 분업이 아니라 폭력에 의존해 유지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을 가족 구성원으로만 한정하여, 여성을 사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현재의 가족 제도에서는 아내폭력이 근절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내폭력 문제를 둘러싸고 여성의 권리가 가족의 유지와 갈등하는 상황 자체가 현재의 가족이 여성에게 억압적임을 보여준다. 아내폭력의 발생, 수용, 해석, 대응은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성별화(gendered)되어 있다. 따라서 아내폭력 해결 방식에 있어서, 가족 구조의 성 차별성을 문제화하지 않는 가족 가치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아내폭력의 사회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지난 17년 간 폭력 당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여성주의 진영의 노력, 여성운동의 국제연대의 성과로 우리사회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실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

는' 급진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폭력 관련법이 제정된 후 국가에 대한 여성의 '외존'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이 법안 그대로만이라도 집행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법 제정은 운동의 완성이라기보다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며, 새로운 담론을 필요로 한다. 아내폭력이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성별 제도(gender system)가 여성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 남성 중심의 공동체적 질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개인성을 획득하는 문제는 곧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어 왔다.

아내폭력 현상의 사회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중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남성)을 통해서만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획득해왔던 여성이 국가/ 사회와 직접 협상하는 주체, 사회적 시민으로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여성운동 진영조차 가족/ 아동 중심의 관점, 가정폭력의 관점에서 아내폭력을 논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부간에는 폭력이 발생할 리 없다고 믿게 하는 사회적 권력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아내폭력이 문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폭력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해서라기보다는 가족 내 성 역할 규범을 통해 폭력이 정상화, 사적화 되기 때문이다. [이영진]

백일몽(白日夢)

[명사 한낮에 꾸는 꿈이란 뜻으로 '덧된 공상'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다소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그리는 것으로, 현실에서 재현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현실이 이루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꿈이나 망상과는 다르다.]



A Woman's Daydream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래서 더 애절하고 처절한.

2003년 4월 12일 토요일, 제 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시간, 동숭아트홀의 넓고 캄캄한 상영관 안 환하던 스크린 위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다. 아주 잠깐 후, 살짝 열어진 앞전 사이로 세면대가 보였다. 빗방울이 보였다. 거울이 보였다. 그리고 피부싱이가 된 얼굴 하나가 거울 위로 떠올라 커다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여기저기서 크게 들려오던 유쾌한 웃음소리, 그리고 작게 들려오던 낮은 웅성거림과 외간의 불쾌함이 묻어있는 투덜거림.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스크린 속의 그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고통을 잊어버린 듯한 채념의 표정. 가슴 깊은 곳에 가득 쌓여 있을 슬픈 한숨. 그 차분함과 침착함에 나는, 잠시 몸이 굳어버렸다. 어느새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한 여성이 있고, 한 남성이 있다. 그 여성에게는 너무나 불운하게도, 그들은 '부부'이다. 그 남편이라는 인간은 허구. 현날 술에 취들어 집에 들어온다. 술병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를 때린다. 그녀는 상처투성이가 된다.

온몸 여기저기에 묻은 피를 닦으려고 화장실로 들어온다. 거울을 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슬프고, 아프고, 초췌하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지칠 줄도 모르는지 밖에서 계속 악을 쓰고 있다. 그녀는 계속 거울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만약 저 놈과 내가 서로 맞바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하고.

아주 짧은 시간, 그녀는 머릿속으로 자신

에게 손을 대지 않는, 아니 대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그려본다. 그 놈에게 말쑥한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낸다. 그 놈이 말대꾸를 한다고 몇 번 손찌검을 하기도 한다.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찔릴때는 그 놈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하고, 울먹인다. 그녀는 그 놈을 본다. 상처를 입었다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 놈을 본다...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놈이 아닌 그녀이다.

잠시 동안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행복했을까? 즐거웠을까? 유쾌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심지어 고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본 세상이 현실화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녀의 슬픔



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 실재할 수 없기에 절망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바람. 공상인 것이다. 백일몽인 것이다. 한 번 잠깐 꾸고 마는 헛된 꿈, 데이드림인 것이다.

1년 전 품이었던 것 같다. 하루가 끝나가는 느지막한 시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며 걷는 나른한 귀가 길. 갑자기 잔잔한 노랫소리를 켜고 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크게, 아주 처절하게.

주위를 둘러 보았다. 약 100m 앞에서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었다. 매우 거칠게, 또 잔인하게. "이년아! 이년아! 네가 누구한테 대들어 지금!"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여성은 꺾이꺾이 소리내어 호느끼기 시작했다. "네가 나한테 남편이라고 해준 게 뭐있다고 날 때려!! 왜 때려!!" 라며, 슬프

게 울었다. 그러자 남편이라는 그 작자는 마치 그런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오냐, 그래, 헤드런게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오늘 평생 그런소리 못하게 해주마!" 라며 쓰러진 그녀를 발로 찼다. 인정사정없는 발길질. 주위에 서 있던-그 남성의 친구처럼 보이던-다른 남성들은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말리지도 않고, TV로 권투 중계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화 끼쳤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공포감이 밀려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까지 한참을 헉헉거리며 뛰어갔다. 그런데, 계속 쫓기에 그녀의 목소리가 땀 들고 있었다. 그 비명 소리가, 그 울음 소리가 끝없이 돌고 돌았다.

아내 폭력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알콜 중독자나 전과자인 남편과 함께 사는 '소수'의 재수없는 아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고 동네에서는 이름난 효자인 나의 아버지, 혹은 너의 아버지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은 너의 아버지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일몽은 즐겁지 않다. 백일몽은 끔찍하고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영화이다. 백일몽은 짓무름대로 짓물러 이제는 고름도 나오지 않는 상처 위를 다시 한번 바늘로 콕 찌른다. 그 누구도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본다고, 남의 일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백일몽을 보고 나면 괴롭다. 슬프다. 답답하다. 마음이 아려 온다.

그러나 나는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다. 아내 폭력?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살다 보면 당연히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싸우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뭐 그런걸 가지고 그 난리야...라고 생각하는 당신, 예제는 더더욱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반드시 보라고, 그리고, 보고 나서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마음이 어려움을 한 번 느껴 보라고.



우리가 대학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혹시 밤을 무섭지 않게 보내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책에서 그에 대한 비결을 보았습니다. 우선 어떤 의문이 들어도 절대 묻지 말 것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데 묻어 물어봐도 바람 탓이라니 하고 넘길 것 그 다음으로는 눈을 흐리게 해서 의심되는 것의 본질을 결코 보려 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그래도 무서우면 차라리 혼자 노래라도 부르며 잊으려고 노력할 것

혹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공학부에 서 이에 대한 비결을 보았습니다. 어느 동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물은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가 나타나면 땅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눈을 가리면 적도 자신을 볼 수 없다 믿었던 것이지요.

위의 두 비결이 실상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적 앞에서 땅에 머리를 묻은 동물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듣고 망령했다고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가려도 눈앞의 존재가 혹은 그 존재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범죄자도, 목격자도, 방관자도 눈을 찔끔 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부장제와 혐을 합쳐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머리도 땅에 묻어 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눈가리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눈가리개 나라에서 눈가리개를 몰아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대학에서 경험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과연 여성 안전에 비해서 지켜나가기 할 전통이란 무엇인지의 개념 설정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볼 형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수 성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과연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의 눈 그리고 타인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눈가리개를 쓴 후에는 진짜 세상이 똑똑히 보인다는 사실을 믿기란 한다면 눈가리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학내성폭력



성별화된 폭력 (Gendered Violence)과 글로벌 시민의식 :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의 개념

성별화된 폭력이란 크게 피해자의 성별성에 근거하여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한다. 또한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때 가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육체적 폭력도 포함한다. 각 사회에서 '인간' '인격' '남성' '여성'이라는 범주들은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이때 그 문화권에서 이상화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폭력'이 사용되거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에는 폭력이 쉽게 사용된다.

이러한 폭력들은 관습이나 전통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인데, 이는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아-유아시: 낙태, 여아 살해, 영양실조
- 어린이-소녀: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 음핵절제, 이슬람사회,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 매춘, 근친강간, 강간,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된 결혼,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폭행 등
- 성인여성: 강간, 자침금살해 및 학대인도, 한국, 강제입신, 신부납치, 아내구타, 아내 강간 등

이 외에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 비하적인 언어적 폭력이나 포르노그래피 등의 유흥을 통한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또한 '남성답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드러운 성향을 지닌 남성들이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나 동성애 남성들이 당하는 폭력도 이러한 성별화된 폭력에 포함된다. 집단적으로 이상화된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이것이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이들을 '제자리로 오게 하는' 교정 효과를 지닌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남자라면~' 또는 '여자가~' '여자주제에~'라는 말들은 성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권력 있는 남성의 세계관은 '개별성'이란 이름으로 보호받지만,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들이 원래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통하게 된다.

이러한 폭력은 '남성이 우월하다'는 뿌리 깊은 관념이 당연한 '관습'으로 전제되면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이 때로는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사회의 본질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 제도 지배 계층의 권력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적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 중심적인 성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남성' 또는 남성적 권력의 눈으로 '여성'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가족 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남성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한 인정을 할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고(부계제), 사회로부터 인지되기 위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부명제), 아버지의 거주지에 기거하거나 결혼 이후에도 아버지나 남편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거제) 등은 한국 가부장제 가족 제도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족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온존시켜주는 모든 행위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절대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남성 집단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힘겹게 자신의 남성성을 수행해야만 한다. 다양한 남성성들이 사회적으로 공존하고, 성차와는 상관없이 그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성별 민감성에 대한 훈련을 받는 일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인권'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이나 관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들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관습'이나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적 전통과 인권 침해

지구촌 시대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글로벌 시민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고유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들을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보편적 인권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필요한지를 토론해보자.

앞(오른쪽 박스)의 사례들은 문화적 전통 또는 관습으로 얘기되어지는 다양한 '폭력'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행동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는 한 집단이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적응해 온 결과의 산물이므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성적 폭력을

키르기스칸 지역의 신부납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칸에서 남성이 결혼 직령기의 여성을 유괴하는 풍습이 있다. 이제 아내를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한 키르기스칸 남성은 다른 마을로 차를 몰다 적당한 여성을 발견한 그는 그대로 잡아채 집에 데리고 온다. 라크하트 토크야바는 11년 전에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인 남자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납치 당했다. 그는 '더럽혀졌다'는 불명예와 반향하더라도 다시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같이 살게 됐다. (여성신문 3월 9일, 2001년)

자침금에 죽는 인도여성

뉴델리 동쪽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수니타라고 불리는 25세의 여성이 남편과 사어머니에 의해 불태워져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식구들로부터 자침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한다. 자침금 때문에 싸우던 중 남편이 뒤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 사어머니가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한경구 외 편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1998, 102쪽)

터키의 명예 살인

터키인 자이트 카나는 최근 13살인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 길거리에서 남자아이들과 얘기하고 가솔을 기도해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는 등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에서다. 명예살인은 간음 등을 저지른 여성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가족이 살해하는 범죄도 이슬람권의 뿌리 깊은 전통이다. (여성신문)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여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고통에 감정을 이입하여 이러한 폭력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만약 이러한 성별 폭력이 단순히 '관습'이나 '문화적 전통'의 이름으로 규정된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정치적 의제'로 설정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이러한 성별 폭력들이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최근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부활하거나 강화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키르키스탄의 신부납치의 경우, 구소련 통치 하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 연방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민족성과 남성성을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즉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실업률이 80%에 육박하고, 사회적 자아를 제대로 구성해내지 못하는 남성들 사이에 알코올 중독증이 파급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게 된 맥락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실된 남성 자아를 왜곡된 방식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폭력이기 때문에 이는 관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성적 폭력이다.

인도의 '지참금 살해'의 경우도, 고질적인 남성중심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계층 경쟁이 맞물려서 증가하게 된 현대적 문제이다. 인도 사회에서 결혼할 경우 여성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지참금이 남성 가족의 지위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의례적, 상징적 기능보다는 세속적 기능을 갖게 된다. 신랑 측에서 지참금에 대한 기대가 커져 지참금이 기대 못 미치는 경우 신부에 대한 각종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 인도의 지참금 살인에 관하여 인도의 페미니스트들은 인도 사회에서 지참금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인도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지참금 살인'은 급부상하는 중산층들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인도 사회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계층 내 혼인을 통해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중산층들의 자본주의적 욕구가 전통적인 여성 비하 등과 혼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의 경우는 한 집안 남성의 명예는 그 집안 여성들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믿는 뿌리 깊은 믿음에 기인하지만, 이 또한 최근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진출에 대한 두려움이 '전통'이나 '관습'이란 이름으로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물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행태로 주장하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이 사실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특수성 또는 고유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별화된 폭력이 가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관

습'이란 이름으로 주장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는 여성 성형 수술의 만연화는 단지 한국 사회가 '미인'을 선호하는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한정하는 남성중심의 가치와 의로 자본의 결합이 결합된 현재적 문제이며 정치적 의제이다. 또한 현지인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맥락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그들'이란 누구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명예살인을 하는 남성인가, 살인을 당하는 여성인가? 누구의 관점을 현지인의 관점으로 보고, 어떤 사람과 무슨 목적으로 연대를 벌여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의식이 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여성적·소수자적 관점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보편적 인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인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권 개념은 서구의 인권 사상으로 나온 자연권으로서의 개념이다. 즉 인권은 생득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앞서는 개인의 권리이다. 서구와는 다른 사회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의 '인격' 개념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주요한 것은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인간간의 '관계' 상에서 인격의 개념이 이해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성 안에서의 인권 개념은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사회



마다 인권의 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개념의 발달 추이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구의 인권 개념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권(Human Rights)이란 개념은 근대 서구 시민 사회의 탄생과정에서 법으로 정교화된 것이기 때문에 '서구적'인 인권 개념이 이제까지 국제 사회에서 주류적인 담론이 되어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인권 개념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회에 적용할 때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인권' 개념이 거론될 때, 그 의도가 때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정부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고발하는 등의 문제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간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누가 인권의 개념을 규정하는가와 현실의 국제 상황 하에서 인권 개념이 약자들의 실제적 삶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 개념을 특정 기구나 국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넘어서기 위한 '서구' 교정 작업이며, 그들과 평등한 '대화'를 시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비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성별화된 폭력에 대해 서구중심주의적 잣대로 평가하면서 그들의 일등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바

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이는 오히려 서구 중심의 정치, 경제적 질서의 재편성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성별화된 폭력의 문제를 글로벌 시민 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지점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지향점이 있다. 하나는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면서, 성별이나 인종 차이에서 오는 '폭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연대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간섭은 한국 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민족적 우월감을 양산해 내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들을 불쌍하고 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과도화된 타자화도 위험스럽다. 이는 글로벌한 연대를 이룩해내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안도와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대한 일방적인 비하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도하기에는 한국 사회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별화된 폭력이 만연한 사회이다.

글로벌 시민 의식이란 '내가 이 곳에서 하는 정치적 실천이 타인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의식'이므로, 한국 사회의 성별화된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운동의 지점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나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남아 선호, 과도한 다이어트, 여성 성형, 아내 구타 등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익숙한' 성별화된 폭력들에 대한 '낯설게 하기'를 시도하여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시민의 역할이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학칙 공청회를 마치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사실이다. 그다지 선정적일 이유 없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여타의 다른 사회와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에 대해서 별다른 예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진 자유라는 위선은 성폭력을 더욱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 한다는 것보다 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내에서 취할 수 있는 자치적인 해결의 방법으로는 자치규약에 의해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학칙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몇 년간 자치규약 제정과 시행이 학내 반성폭력 담론의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많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지극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자치규약이란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높은 관심과 합의과정이 있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규약에 호소하기에는 학생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반성폭력 학칙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앞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가 성폭력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는 대신, 학내 상담실이 신고를 받고, 학칙에 의해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칙은 학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적용을 받는 것이니 만큼 학내 성폭력 사건은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으로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요원하기만 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찾게 되는 곳이 성폭력 상담실이다. 그러나 학내에서 독립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여학생회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1인 밖에 없어서 안정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편이며,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논의테이블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이 오간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반성폭력학칙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가해자를 위한 것인지 무색할 정도로 가해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기도 하는가하면, 어렵게 어렵게 피해자의 요구안이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무력하기만하다. 사실 학교가 무력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 해결에 별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함께 성폭력 사건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비단 성폭력 사건 뿐만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외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학내 성폭력 사건이 학내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 민원까지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가히 대단하다.

지난 18일 있었던 반성폭력 학칙 공청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제기이다. 학교 관계자(?)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공청회이지만, 학칙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성을 매개로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성폭력의 문제를 학교가 끌어안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 당연한 권리들이 학교의 '대외 이미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교가 깨닫게 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이라는 이름 좋은 명목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세대학교는 반성폭력 학칙의 개정과 개선을 위해 제 몫을 다하라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0년 10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했다. 이는 당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있었던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식의 제정에만 급급해 그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칙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시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학칙에도 여전히 부족한 지점, 운영상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부족함을 채울 일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학교에 있으나, 현재 학교는 학칙의 개선과 개정이란 자기의 몫을 망각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대책위원회'에 학생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학생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음을, 성폭력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과 사건 예방의 힘을 갖는 '사건공개'의 원칙에 대한 무시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음을 말해 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함과 무책임한 교외의 전문기관에 지문을 구하는 것에 대한 무성의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의지의 결여와 학교이미지 실추만을 신경 쓰는 일관된 태도의 문제이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없이 대책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일삼는 현실은, 학칙의 올바른 적용을 바라는 것은 차라리 사치라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강제력을 갖는 학칙은 제정보다 제대로 된 운영이 중요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연세대학교의 이러한 임무 방기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대학의 현실을 외면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예방보다는 학교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여 대학이라는 최소한의 자기정체성마저 상실한 모습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경계하게 인정하고 분명 학내에 존재하는 성폭력의 의미와 그 해결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공청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할 것이다. 대학 내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에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반성폭력 학칙의 운영을 바라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학칙의 개정과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

2003년 9월 18일
반성폭력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연세인 일동



연세대 교수 성폭력 사례들

연세대 교수 성폭력 사례 정리

2003년 한 해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교수 성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이다. 이는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교수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지만 교수-학생 간의 관계 안에 교수로서의 권력과 더불어 성별권력까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의식적 변화로 인하여, 그리고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터져 나오게 되었다. 올해 들어 연세대학교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교수 성폭력 사례들을 짚어 보려 한다.

**성폭력 피해자인 김기봉교수가
앞날에 복귀했다는 인연다**

김기봉교수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앞날에 복귀했다는 인연다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성폭력 피해자 김기봉교수
앞날에 복귀했다는 인연다**

성폭력 피해자 김기봉교수
앞날에 복귀했다는 인연다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교수를
중징계하라

01_사학과 P강사 사건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2003년 3월 문과대의 한 수업에서 발생한 언어적 성폭력 사건이다. 수업 중 P강사는 "왕이 궁녀를 따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학생들, 수업이 지루하니까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남학생들 담배 피워도 상관 안 합니다.(학생들 웃음) 창문 열어놓고 구석에 가서 피우고 와도 상관 안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요. 다만 여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여학생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학생들 웃음)"라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따먹는다"는 표현이 여성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였고 강사가 강단에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점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담배 이야기와 이 말을 듣고 웃은 남학생들을 보며 많은 휴먼 여성들이 순간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으며 그 발언이 매우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딸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에서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대상화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강사의 발언에 매우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그 수업이 매우 불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더 이상 그러한 발언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언니넷(www.unninet.co.kr)의 '연세 교수 성폭력 사례집'이라는 커뮤니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을 알게 된 총여학생회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학생 성폭력 상담실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성폭력 상담실에서는 P강사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P강사는 강력하게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학생들에게 설득시키려 하였다. 수업을 수강하던 한 여학생이 자신도 그런 발언을 들은

것 같으며 사실을 부인하는 강사의 말에 반박했으나, 몇몇 남학생이 강사의 편에 서서 강사를 위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신고 학생으로 인해 강사 뿐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P강사는 학기 중에 수업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버렸다.

3) 교수 성폭력 중 가해자가 강사일 경우의 문제 / 교수 성폭력이 용인되는 수업

이 사건은 가해자가 강사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강사가 도중에 학교를 떠나버림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은커녕 사과조차도 받지 못하였으며 학교 당국은 강사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 아닌 종결을 맺었던 마는 것이다. 사실을 부인하는 강사 뿐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은 더욱더 어려웠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이 아닌 강사의 편에 서 있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가해 강사와 그에 동조하였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성폭력적 문화를 유지하고 재생산한 크나큰 공헌자임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용기 있게 문제 제기 하였으며 자신의 수업권을 찾으려 하였던 한 학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와 상처만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이 저지른 가해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학교 당국은 학생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방기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02_ 법과대 K강사 사건

1) 사건 내용

2003년 5월 총여학생회는 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여간 교수 성폭력 사례를 수집고, K강사의 발언이 신고되었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K강사는 수업 중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이 책의 구입을 위해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남자애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 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서는 "아~ 이거 또 여자애들이 성희롱이니 머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냥 들으라구"라고까지 하였다.

2) 사건 경과

교수 성폭력 토론회 다음 날, 토론회를 취재했던 한겨레신문에 K강사의 발언을 표제로 탄 기사가 나갔다. 그러자 K강사는 "누가 여성 해방의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입장글을 법과대 게시판에 부착하여 문제의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토론회 이후 법과대 교수 회의에서 다음 학기부터 K강사에게 강의할 말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법과대는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과대 차원의 조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K강사는 자신의 처우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반박글을 계속해서 신문에 기고하면서 자신의 발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로 인해 사건은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강사와 이러한 성폭력 발언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 간의 단순한 대립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화제의 인물이 된 K강사의 인터뷰 기사가 인터넷조선일보에 실리기까지 하였다.

3) K강사는 자신이 곧 '여성해방의 걸림돌'임을 겉히 인정하려

K강사의 발언으로 따지면, 남학생은 육체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다르다. 여성은 육체적 힘이 아닌, 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로서 남성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함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존재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 매우 심각하고 성폭력적인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나 K강사는 "...그런 거 아니냐? 그냥 들으라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그 발언을 성폭력적으로 인식한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성폭력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K강사는 너무나 용감하게도 하내에 그리고 언론에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라고 묻는다. 그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발언을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문제제기한 학생들을 '노예군성'이라는 말로 비난한다. '여성과 남성이 생식기능을 제외하면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변하는 K강사의 태도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결코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켜 버리는 것이다.

03_ 사회복지학과 K교수 사건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2000년 5월에 발생하였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K교수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졸업생이었고, 논문도 쓰고 있었다. K교수는 피해자에게 논문 지도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집으로 데려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등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폭력 가해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학위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났다. K교수는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둔 후 피해자에 대해 '원래 정신이 상이었다',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남성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러한 K교수의 행위에 분노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회에서 학교 본부에 성폭력 교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K교수는 연세대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쓴 행정대학원 졸업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며 2002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올해는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나갔다. 그리고 2003년 4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법원은 "B교수는 A씨의 논문지도 교수로서 사실상 A씨의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다"며 "B교수의 행동이 성적인 동기의 의도를 가지고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00만원을 배상하라"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총여학생회는 다시 한번 판결 결과를 가지고 학교측에 K교수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학교는 '민사판결 결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피해자 서명이 없는 진술서로는 사건 접수를 할 수 없다', '사건이 오래되어 처리할

수 없다'는 등의 입장만 밝히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징계위는 2003년 9월 17일 K교수에 대한 징계를 내리려 하였으나, K교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학교는 징계 없이 사건 종결을 선언하였다.

3) 학교가 먼저 학칙을 지키고 성폭력 가해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 공소 시효는 2년이다. 학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넘도록 200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도 미뤄왔다. 학위까지 포기한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반면, 가해자 K교수는 수업을 계속하였다. 엄연히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하지만 학교 스스로가 이러한 학칙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는 학칙을 지키고 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다하여 또 다시 이러한 예견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책임이다. '교육기관'이라는 이름 좋은 명목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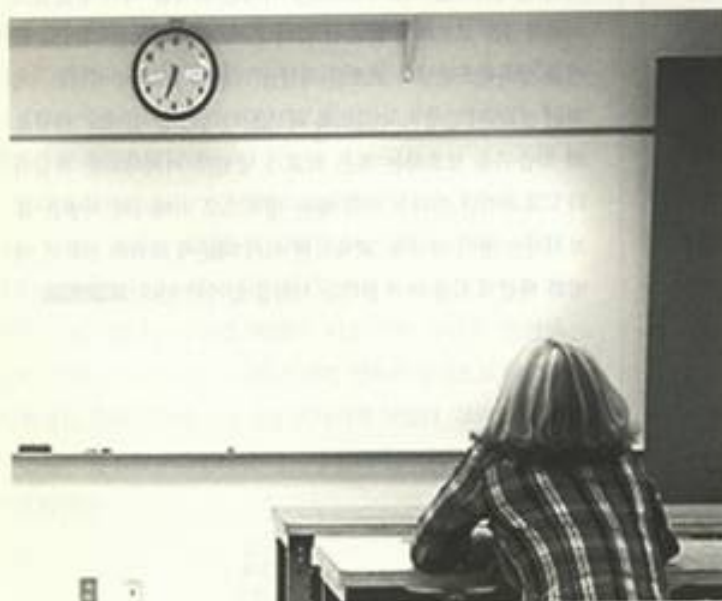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교수성폭력, 그 특수성에 대하여

paper_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

교수성폭력은 무엇이 다른가

교수성폭력이라 함은 가해자가 교수인 성폭력 사건을 말합니다. 교수성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권력'입니다.¹⁾ 교수가 아닌 다른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진로나 학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면 더욱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수 성폭력은 교수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해결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해결과정에서의 특수성

교수성폭력이 우선 신고, 접수되면 여러 가지 다른 권력 장치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학교측은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여 성폭력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 교수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S 대학교에서는 가해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교권침해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반성폭력 학칙이 있는 경우라도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칙의 경우 처리절차동안 공간분리에 관한 원칙도 없을 뿐더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 심문하는 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료 교수들이 연대하여 행동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기도 합니다. 동국대의 경우 동료 교수들이 지지 서명을 해 주어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이것이 재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해 교수가 교수사회 내에서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권력이 보다 많은 교수라면 학교에서 또는 교수집단에서 그를 도와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점들

교수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¹⁾ 교수 성폭력의 주 피해자는 권력관계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학생으로 가정하고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은 90년대 초의 '우조교 사건'이라 불렸던 서울대 신청후 교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 내에 성폭력에 대한 학칙도 없었으며 법적 절차도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교수는 아직도 서울대 강단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10년에 걸친 싸움 끝에 손해배상 500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동국대에서는 K교수 사건이, 2001년 서강대에서는 K교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학교에서 가해자 K교수를 해임시켰습니다. 서강대 K교수의 경우 2001년 사건 발생 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2년 동안 정직과 안식년을 동시에 취하며 형사/민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2000여 만원을 선고 받고도 교수는 2003년 3월 학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학교로 복직을 한 뒤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가해를 했고 이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 K교수를 해임시켰습니다.

또한 서강대에서 얼마 전 발생했던 H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²⁾도 H교수를 파면시키는 등 많은 학교들에 학칙이 마련되면서 보다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국대 K교수의 경우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그의 징계를 정직 1개월로 낮추고 복직 시켰습니다. 아직도 동

경 이 사건의 경우 K교수의 2차가해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중 발생하여, 다른 교수의 징계가 가해교수의 가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학내에 공개하지 않아 교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대 김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K교수와 H교수도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있는 위원회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징계 받은 당사자가 그 징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 징계경감을 위해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곳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입니다.

이 재심에서 당사자는 징계를 내린 학교와 징계를 받은 교수가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피해자가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학교와 가해자에게만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주장한마디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는 보통 학칙상의 처리나 법적인 처리 또는 기타 여성부, 교육부예의 신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했기에 생겨난 각 학교의 반성폭력 학칙이 가장 피해자를 배려하는 학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학칙을 모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의 경우 2년 여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은, 그것이 바로 교수성폭력입니다.



학내 여성지도

① 강의실 - 수업시간의 성폭력적 발언들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고, 방언소 나가니?, 고재 살든지 없는 여학생은 몸이라도 팔아라, 여자가 치마를 입으려면 다리가 예뻐야지~ 수업시간에 쏟아지는 교수들의 성폭력적 발언, 학생들은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을 감당하며 수업을 들어야한다. '그런 말들은 불쾌하다'고 한마디 건의해도 교수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버릇없는 학생, 수업 분위기를 위해 한 농담 한마디에 유난히 민감하게 구는 이상한 학생이 되어버릴 뿐.

② 사이버 공간 - 이곳에도 성폭력은 있다

연세인 정보 공유 커뮤니티-그 정보의 방대한으로 많은 연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이다. 그러나 권력은 수업 추천이나 반을 짜고, 연장공에 접속한 여학생들은 그 정보의 양만큼이나 방대한 성폭력적 언어들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성경험 고백들과 각종 성적 비속어들, 여성주의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들, 그 곳의 '아주 상식적인' 마초 '들은 상대가 명백한 폭력이라는' 상식은 모르는지, '통행에서 언니 초이스 잘하기', '군대 가기 전 피스톤 운동 할 수 있는 싸고 좋은 곳 추천'과 같은 정보들을 서슴없이 공유하고 있다.

③ 화장실 - 불안해서 학교 화장실도 못간다네!

있잖아, 내 친구 선배 언니가 중도 4층 화장실에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위를 쳐다봤더니 세상에! 웬 남자 하나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라. 한동안 중도 화장실에 나타나는 반대편에 대한 풍문이 퍼돌았다. 여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은 여학생들을 학교 화장실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다. 다행히 지난 학기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었지만 설치 당시,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발은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④ 대강당 앞 - 여성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남성들만의 공간

노천극장과 학생회관을 연결하는 지름길이자, 대강당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가 농구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 대강당 앞 공간에서의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했던 여성들의 노력으로 학교 측은 농구대를 공대 옆 운동장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⑤ 대학원 연구실 - 교수 성폭력

공부하려고 들어간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받아야할 지도교수에게 성폭력 위해를 입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예초에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도교수의 영향력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수들은, 사건해결에 서도 교수라는 권력을 심판 발휘할 뿐, 가해사실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피해자를 정신이상으로 몰던 한 가해 교수가 학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먼저 사직해버린 일이 있었다. 징계 기록이 없는 그 교수는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학교로 옮겨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해결의 어려움에 지쳐 학교를 떠나고, 가해교수는 몇몇 강단에 남아, 다른 학교에서도 다시 교육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어처구니없는 상황.

⑥ 기숙사 가는 길 - 어둡고 인적 드문 밤길

밤 늦은 시간 기숙사로 귀가하는 여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험을 느껴본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기숙사 가는 길은 실제로 어둡고 인적이 드물다. 당장 가로등 몇 개라도 보충이 시급한 실정. 이화여대의 경우는 학교 안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동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비상전화를 설치해 놓았다.

⑦ 담장 - 담장을 없앴다고?

'연세대학교 담이 내년말까지 허물어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캠퍼스가 개방된다. 서울시는 23일 도심 녹화사업과 지역주민의 염원에 따라 내년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세대와 학교 주변 담 허물기 사업을 발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초 착공, 내년말 완공할 예정인 연세 학교 담 허물기 사업이 끝나면 학교 동쪽 동문회관~정문~대운동장 앞에 이르는 길이 1.5km의 담이 철거된다. 시 관계자는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 대학은 담이 없이 그 자체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대학촌'을 이루고 있다"며 "자연환경이 잘 꾸며져 있는 우리 대학 캠퍼스도 교수와 학생 주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3.8.23]

밤의 신촌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다. 취객들은 술기를 핑계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갖은 위협을 가한다. 학내에 거리에서의 성폭력 가해에 대한 아무런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담을 허문다면, 신촌 지역 밤거리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학내 공간에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대학을 공개 하는 것은 대학이 가져야할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한 대책 없이 담장을 허무는 일보다, 학교 도시권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⑧ 기숙사 -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쉬운

무악학사는 참으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에 빈번히 발생한다.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사의 번지하층을 창으로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시선, 기숙사 내선 전화로 흔히 걸려오는 음란전화, 당장 지난 학기 4학사에서는 여학생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을 남학생이 훔쳐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대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⑨ 과/반/동아리 방 - 이곳에 여성이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이 배제된 과/반/동아리 문화에 대한 '여성의 말하기' 시도는 학내에 많은 문제제기를 던져주었지만, 실상 학내 공동체의 여성해제적인 문화 개선은 아직까지 멀기만 한 이야기이다. 반 문화의 형성은 여전히, 집에 일찍 귀가하기를 강요받는 여학생들이 배제된 술자리에 서 이뤄지고, 반에 잘 적응 하는 것은 곧, 콘소리로 음원을 띄우는 '산배 오빠'들과 친해지는 것인 상황도 여전하다. 뭐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당장 직접적인 성폭력적 태러들이 학내 공동체 문화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술자리에서의 성적인 농담들, 신체 접촉이 강제되는 게임들.

⑩ 본관 -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학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

2000년 연세대 사회복지과에서 발생했던 교수성폭력 사건이 얼마 전에 공개되었다. 학교측에서는 사건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징계위를 열었지만,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 교수가 사임하자 그것으로 사건 종결을 선포했다. (피해자를 정신이상으로까지 몰아 전혀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가해교수는 이제 징계 없는 깨끗한 기록을 들고 연세대에 재임용되거나, 다른 학교에 임용되어 몇몇 강단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많은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었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처리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학교 측의 일관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보다는 '학교 이미지 관리'가 훨씬 중요하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그것의 현신인 허술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하고자 지난 9월 18일 '반성폭력 학칙 문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학칙개정과 성폭력 사건 해결을 담당하는 학교 측의 실무 인사들은 결국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지가 없는 것이다.

⑪ 여성교수 비율 - 10.1%! (여성교수 64명에 남성교수 564명)

생활과학대와 융학대를 제외했을 경우 여교수는 25명으로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7%(25/572)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경대, 법대, 국문실, 국제학, 정보, 영상, 사회복지, 연한신학 대학원은 아예 여교수 비율이 0%이다. 거의 40%의 여성이 졸업생으로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성과대를 제외하고는 여성교수가 전체 4.37%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성 교수가 전혀 없는 단과대학이 있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준다. 단지 역할모델이 없는 불편 뿐만이 아니라, 진학이나 취업에 관한 상담을 동성의 교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그 학문을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2003년도 학교와의 교육환경 개선 협약서에 서는 여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학기 법대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에서 여성 후보가 탈락된 사건이 있었다.



그나마 우리가 마음

놓고 될 수 있는 곳



①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신고하리라' 마음 먹은 이들, 성폭력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 상담실은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여학생처 안에 있다.

e-mail helper@yonsei.ac.kr

② 여학생휴게실

여학생 휴게실은 학관 중도 논지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단대에 위치하고 있다. 화장도 편하게 고치고 싶고, 치마입은 날도 편히 앉아 쉬고 싶은데 과방이 편한 공간이 아닐 때 생리통이 심한 날인데 수업이 늦게 까지 있어 학교 안에서 편히 쉴 곳이 필요할 때 여휴가 그 공간이 되어준다. 그러나 현재 관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학교의 각 부서들, 그리고 과사무실과 단대학생회 모두 손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청소조차 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이용을 안하다보니 더 폐쇄된 공간이 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 학교 측이 여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휴의 주인인 여성의 상상력도 그 고리를 끊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여휴 날적이, 여휴에서의 생리통 방지 자압 프로그램, 각 단대별 여성운동 단위와의 만남 등. 여휴는 많은 일들이 가능한 공간이다. (논지당에 표시해서 소개하고 w마크로 단대 여휴 표시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듯)

④ 모반



남성중심사회에 모반을 꾀하고자 하는 문과대 여성주의자들의 모임. 여성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남성 위주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과대학의 특수한 현실 아래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대 지하에는 모반인들이 웅거하기 모여 있는 모반 방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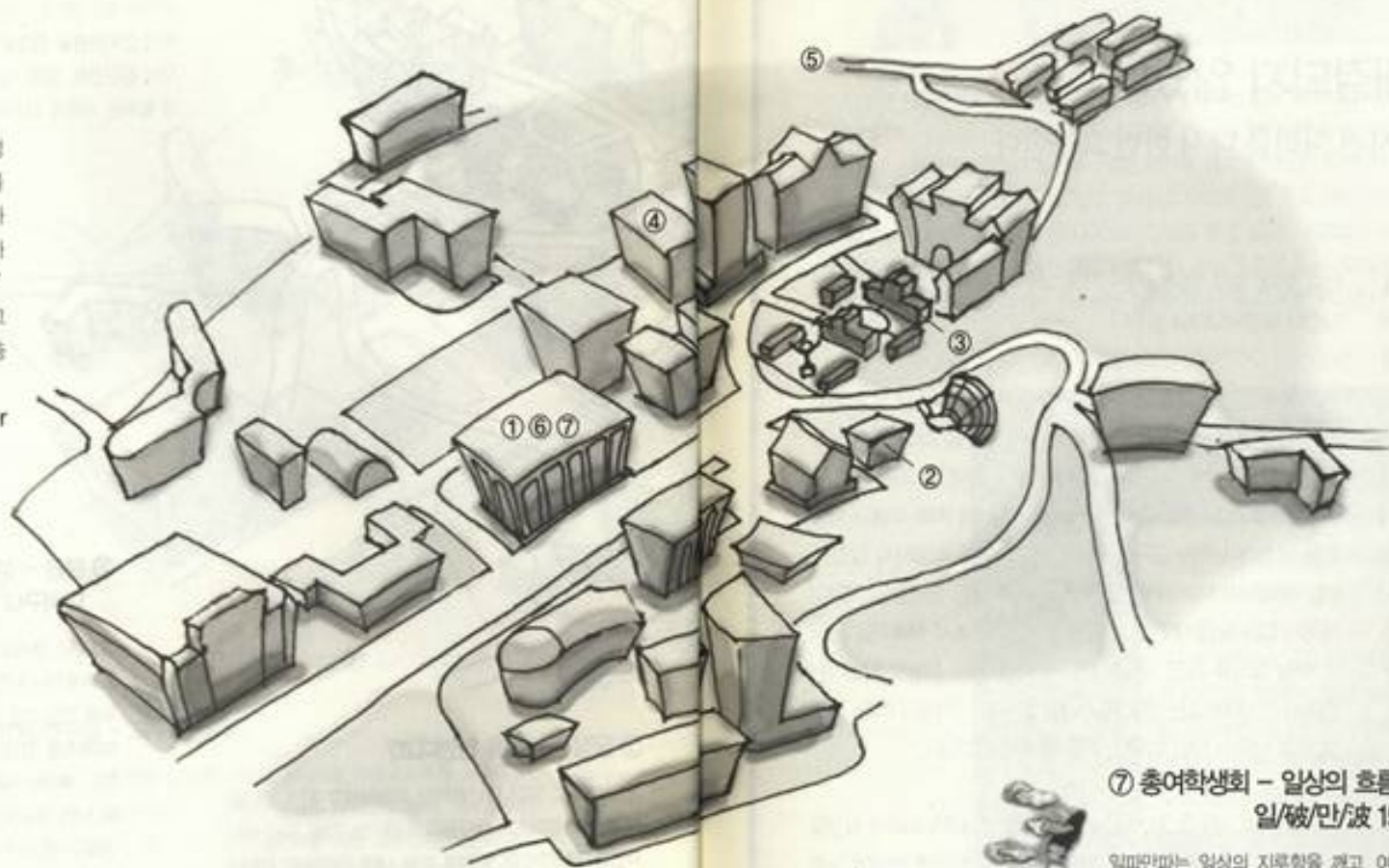
community - www.unninet.co.kr에서 '모반' 커뮤니티

③ beyond



비온드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여성주의자들의 공동체이다. 1997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회대 자타규의 자료집을 발행 한 바 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에서 'beyond' 커뮤니티



⑤ 두입술



두입술은 학내 여성자치언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여성주의 글쓰기를 하는 곳. '두입술'을 발견한다

community - www.unninet.co.kr에서 '두입술' 커뮤니티

⑥ 페미니리



페미니리는 학내 여성학 자치도서관을 고민하는 자치모임. 페미니리는 여성학, 여성운동에 대한 자료와 경험을 모으고 분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안에 있다.

e-mail - feminary@freechal.com

⑦ 총여학생회 -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파 15대 총여학생회



일파만파는 일상의 지루함을 깨고, 여성주의의 흐름을 파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학우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학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내고, 여성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15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수업 발간, 3월의 새내기 여성학 학교 '전쟁'에 반대하는 여학우 기획단 활동, 5월 대동제 기간의 '새물터와 성대대 페어' 여성-동기 연대장터 실시, 5월 22일의 '교수성폭력 토론회' 개최, 6월의 재회 '세수업리' 문화제 '여성 욕망 일하다' 개최, 여성주의 집지 daydream 발간, 9월 18일의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월의 재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개최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성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으며, 총여학생회실 안에 북카페-feminary를 만들어 여성학 도서를 열람, 대여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실은 대체 어디에? 바로 이곳 학생회관 3층입니다.

전화 : 2123-3645

e-mail : feminist@yonsei.ac.kr

홈페이지 : www.yonsei.ac.kr/~ysfem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 학교 당국에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9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고한학생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인 김기환 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및 처리와 적극적인 교수 성폭력 예방 활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김기환 교수는 징계 결정 며칠 전에 자진 사직을 해 버렸고, 학교 당국에서는 가해 교수 사직으로 성폭력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안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김기환 교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무려 40개월 동안 교수직을 유지하였으며, 올해에는 연구 안식년으로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김기환 교수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 학생을 성폭력 가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와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가해 교수의 사직은 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며, 학교 당국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 행위는 김기환 교수가 지난 40개월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자위를 유지하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학과 동료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수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학교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김기환 교수는 계속해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단 2년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징계소의를 시작하였고 징계결정 며칠 전에 가해 교수가 사직을 함으로써 정작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못하였다. 그

리고 현재 학교 당국에서는 가해 교수가 학교를 그만 동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한다.

학교측이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방관자적인 모습은 연세대학교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얼마나 무능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연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내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모습이다. 소속 학생이 학업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학생 보호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이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책임 회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에 대해 요구 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현재 가해 교수 입장만을 고려한 채 학생들의 절심한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할 권리가 있다.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학교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03년 9월 22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명백한 폭력, 성매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어떤 남성은 말한다. 성매매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어왔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자못 유식한 듯 성매매가 범죄 아님을 강변하는 남성도 있다. 이미 관습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데,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는 것에 뭐 그리 죄책감 느낄 필요 있느냐고 시시덕거리는 남성도 있다. 성매매도 어차피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래일 뿐이라고, 딱 합리적인 태도로 성매매의 범죄성을 탈각시키려는 남성도 있다. 심지어 성매매는 남성에게 의해 낭만화되기도 한다. 한국 남성 작가들의 문학과 영화에서 보여주는 '누이'로서의 장녀 이미지 그들이 만들어낸 성매매 여성은 남성 화자들과 대개는 방황하는 청춘들이다. 이들을 자어 주고받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그 모든 거짓말들이 있고 있는 진실. 그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삶과 고통이다. 그들의 앞에는 성매매 여성의 현실이 있다. 그들의 구박자로 조리되어 있고 가려져 있을 뿐.

그 허구적인 '성욕'은 그 역사는 그 관습은 대체 누가 만들고 지켜온 것인가. 재빨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외친다. 결국 주검이 되어서야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던 군산의 다섯 언니들은 스스로의 성을 거래하는 데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남성 상구대 범죄자와 남성 성매매 범죄자의 거래일 뿐이다. 성매매를 낭만으로 바라보는 남성 작가들의 언어에도, 허투 방에도 몇 번의 성폭력당사자가 동의한 적 없으므로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이를 규명하고 일관조차 모주에게 취위 당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현실은 없다. (오하리 청서적 위로를 주는 여성으로 성매매 여성을 마음대로 대상화하고, 낭만화 함으로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데 기여할 뿐)

남성의 언어로 말해져 온 것은 성매매에 대한 옹호론만이 아니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주류의 목소리 역시 남성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성매매가 적당해서 순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내 누이 같은 이들의 순결을 보호해야 하니까, 성매매를 거부할 뿐. 성매매 피해 여성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한 비판의 엄중한 해답을 마련하게 한다.

남성의 말들로 인해 가려진 진실. 세상에는 가해자의 일들이 가려져 있는 피해자의 진실들이 너무나 많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귀 기울이는 것이다. 피해자가 그의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경청하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핑계쳐 버리지 말고, 거짓말 투성이인 '정식'에 자신을 숨긴 채 편안하게 들지 말고, 가려져 있던 진실 언니들의 앞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그러면 아마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성매매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진실을.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무지와 편견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평범한 가치관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사실은 타자화에 기인한 '무지와 편견'에 불과한 성매매에 관한 말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부차적인 목적은 '성구매 범죄자'들을 비판 내지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독자들은 적어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으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범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글에 쓰인 '그들'이나 '성구매 범죄자'라는 표현에 굳이 자신을 동일시하며 불편해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무지와 편견 1 성매매? 그건 필요악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 '제어할 수 없는 남성 성욕이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차선택'이라거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매매행위, 즉 필요악'이라는 말이다. 심지어 성매매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보라고 하면 남성들의 해소되지 못한 욕구가 많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를 낳는 무질서한 지옥을 상상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공포는 왜 계속해서 재생산되며 무엇을 위하여 유지되는가. 그것은 이러한 담론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나 구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진다. 사실 성욕이란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성범죄는 우발적인 것이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욕을 제어할 수 없으니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간은 충동을 절제하도록 교육받으며, 당연히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제하지 않아도 좋은 상황, 즉 성매매를 용인하는 담론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여성의 성을 임의로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뿐이다.

이 담론을 통해 그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페니스와 성적 능력으로 대별되는 남성성, 즉 사회적 기득권을 얻는 자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매매 범죄자들의 시각으로 성매매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자칫 성매매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성매매는 또한 법으로 규정된 범죄 행위 중 가장 범죄 취급 받지 않는 범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단순히 오락거리의 하나로, 혹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정당한 거래 행위로 인식하며 별 거리낌없이 구매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라. 왜 여성들의 성을 남성들이 사게 되었는가. 성매매란 대체 누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일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본과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착취가 여성의 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이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가.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다. 성매매는 가장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이며 단지 없어져야 할 범죄일 뿐이다.

무지와 편견 2 음란한 창녀, 혹은 탐욕스러운 악녀

흔히들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칭하여 '윤락녀' 혹은 '배춘 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매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들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들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윤락녀'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가 기만적으로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정조'를 잃고 여러 남성과 성행위를 즐기는 여성, 혹은 사치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있는 단어이다. '배춘 여성'이란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윤락녀'나 '배춘 여성'이란 단어에 포함된 의미처럼 성매매의 현실에서 성을 파는 주체는 그녀들이 아니다. 성매매 현실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은 단지 거래되는 '상품'일 뿐이며 그녀들을 착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성구매 범죄자가 존재한다. 군산화재참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매매 구조에서 '화대'는 빛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포주 등 성판매 범죄자들에게 착취당하게 된다. 그들이 성매매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들이다.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상습적인 폭행, 강간, 감금, 착취의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업계'도 아니요, '돈을 벌고'있지도 못하다.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바다. 그러

나 '윤락녀', '배춘 여성' 등의 단어와 이미지는 대부분 남성인 성구매 범죄자와 성판매 범죄자의 존재를 문제로부터 은닉한다. 이는 여성 억압적인 사회 구조, 구체적으로 말해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의 제한, 성폭행 및 가출의 경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인 것이다.

무지와 편견 3 불쌍하고 험한 선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하구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 모성적인 너그러움으로 성구매 범죄자들을 감싸는 선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난 척 돌보아주는 시늉을 할 수도 있는데다 부담없이 섹스도 즐길 수 있으니 왜 선녀가 아니겠는가?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그녀들이 불쌍하고 가련해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들은 여성들이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며 행동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분명히 성별권력관계와 자본주의, 가부장제 등 이중 삼중의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건 너무 평범한 진리 아닌가? 이처럼 당연한 진리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피해를 강조해야 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그녀들이 말할 수 있게, 그녀들이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돈 몇 톨일까? 설마하니 그들의 '구원'일까?

무지와 편견 4 공창제? 당당한 직업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를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쉽게 공창제나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주장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창제, 즉 성매매 합법화를 통하여 그녀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주장 역시 성을 사는 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건강이나 인권이 향상되거나 사상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1946년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 하였던 공창에 관한 기록에서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또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기만적인데 이는 현재의 사회와 성매매의 구조를 생각할 때 성매매 피해여성이 더 이상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받기는 커녕 성매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성판매/구매 범죄자들이 더욱 거릴 것 없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창

제나 성노동자 논의 자체가 '여성의 성이 왜 매매되는가',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이 사회에는 주류의 논리로서는 아무리 얻어치고 매치며 설명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모든 여성들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성별과 계급의 권력 관계에서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을 위한 논리가 상식의 말을 쓰고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며 문제를 왜곡한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판매/구매 범죄자, 혹은 잠재적인 성구매자이며 피해자의 위치에 설 여지가 없는 남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구조적 피해자인 여성들의 시각,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만 한다. 성매매가 사라진, 또한 모든 폭력들이 사라진 행복한 세상을 꿈꿔본다.

■ 참고글

성매매 불감증 현장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신희영아내 아동야생동물 171 자유기고가)
성매매를 보는 사회적 시선
(전세연 안국대교수)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으로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바란다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에 있었던 두 번의 화재사건으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요구되었으며, 성매매 방지법이 제안되었다.

성매매행위자? 성매매피해여성!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완전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일반시민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 인식 한계를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다. 여성단체들이 완전 비범죄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다른 단체들의 협력이나 법률의 통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은 겉으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범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최대한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처벌을 면하고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 여성들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고 피해자와 동등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법률을 재

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 우리의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다. - 비범죄화되는 여성들의 범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압력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범죄화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의 권리-보호와 지원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인신매매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조직범죄로써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된 원인을 피해자에게 물리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보호에 대해 회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은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지원의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에서 만족해야 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강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이러한 내용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물론 중요하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인지하도록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중인 법안에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법은 성매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보호법의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국제협약이나 다른 국가의 법률을 참고-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하였다.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장부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입은 빛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호주에게 착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군산의 성매매 업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구조인데, 이는 호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따라서 이 법은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성매매의 구조상 내부자의 고발이 중요한 점을 감안,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형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입경로와 성매매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에 따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 강요, 광고, 모집, 유인, 권유, 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미국 SAGE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조

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성을 사는 사람들의 재범율은 80%에 이르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4500명중 재범율은 단지 2%에 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자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다.

이 법은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감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을 명령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성매매업소로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강제나 강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인신매매로 인정되어 왔다. 이것은 강압보다는 좋은 직장에 대한 사기광고나 모집행위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현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법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신매매의 개념에 국가 간의 이동을 포함시키고 가장 강력한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윤락녀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이 법에는 "성매매된 자"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특히 다른 부분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부분이다. "성매매된 자"란 이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다. 성

매매된 자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미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의 결과로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는 명목여부를 불문하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또한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나 재판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등 인권보호 조항을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된 자나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한 긴급보호시설(5일 미만) 및 자립지원 시설(6개월 미만, 1회연장 가능),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입소하는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상담소의 이용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보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성매매 방지법에는 국가 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강화에 대한 규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성매매 방지법은 얼마 전, 효용성을 위하여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어 조속히 의결된 대표로 발의되어 있다. 그 하나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여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리가 성매매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상정과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문제는 계속 되던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가는 동시에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이 발의에 그치고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여 폐기될까봐 발을 구르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 단체들과는 달리 국회의 속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폭력이다. 이 법안이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게 될 법안으로서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성매매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대중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 글은 연세대학교 (www.unn.net)에 김현선씨로부터 대 표파가 쓰이고 수습(수습)한 김현선씨 정리의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으로 :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을 바란다'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한국 사회 김고연주 문화협동과정 석사

나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뛰어진" 이십대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이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악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가 많아질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나의 나이에 비례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과 나이를 먹을수록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한국의 가부장성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집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줄 뿐이다.

한국 사회는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어리거나(십대) 젊은 여성(이십대)들만이 존재 가치를 지닌다. 어리거나 젊은 여성들도 경쟁력 있는 외모를 지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만, 나이가 든 여성

(삼십대 이상)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닌 여성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성의 나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2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성폭력·포르노그래피 제작 및 배포·매매춘 등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2001년부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규정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신상공개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신상공개가 이중 처벌 또는 인권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까닭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92.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월간중

앙, 1999.3.1)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성인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재조치 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해 불법이지만, 실상은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용산 등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이 버젓이 존재하고, 경찰이 이들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을 지키면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국 사회는 성인들의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또한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곧 한국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성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는 여성의 성을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동시에 상품화해 왔다. 여성에게 순결과 정절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국가가 지지하는 것이 곧 미성년자 보호 담론이다. 여성의 성을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다음의 세 가치를 의미한다.

먼저,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순결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이들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젊은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들의 욕망이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든 여성은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곧, 한국 사회는

미성년자 보호 담론을 통해 어린 여성들의 성적 순결을 통제하고, 동시에 성인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방관함으로써 젊은 여성들의 성을 적극적으로 욕망하며, 나이든 여성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무성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나이에 따라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 가치가 판단되는 장소로 대상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성들을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섹스 어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섹시하다"는 것은 남성들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큰 칭찬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섹시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고달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섹시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십 년에도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도 여성들은 남성에게 성적인 억압을 받거나, 성적으로 대상화 된다.

또한, 외모의 아름다움의 근원인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간주됨과 동시에 성적 정체성이 부정됨으로써 무성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기분 좋게 섹시해질 수 있기는 어렵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사회에 살면서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픈 종종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성들을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섹스 어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전통적으로 무성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을 요구받았던 성매 여성들이 성적 존재로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들 성매 여성들이 섹시해지기 보다는 성적 순결을 지키기를 기대하면서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느 멋진 영화제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어느 멋진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여성 감독들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단편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10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외솔관 B09호

애 니 메 이 션



나의 이야기 My Story | 유인지 | 2002, 13분 12초

Ep 01 : 주인공인 나 는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Ep 02 : 비디오 녹화에 빠진 주인공. 친구가 걱정스레 말리지만 듣지 않는다.
Ep 03 : 주인공은 살거지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반항하지만 아들을 관여하는 아버지에게 질망한다.
Ep 04 : 주인공은 현실의 문을 열고 나가려 하지만 결국 겁이 나서 문을 도로 닫고 만다.
2002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애니메이션 부문



새인지 몰랐던 새 A Bird That Didn't Know It Was a Bird | 송인숙 | 2002, 5분 30초

이유를 알 수 없이 빗줄에 묶여 높은 탑에 갇힌 새는, 빗줄을 물어보려고 갔을 수단을 동원하지만, 헛수고다. 그때 작은 창문에서 흘러 들어온 한줄기 불빛이 밖으로 인도하지만, 떨어지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망설임이 창문 밖으로 나오면서 빗줄이 풀리고, 날개가 있었음을 알게 된 새는 자유롭게 날아간다.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2002)
2002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 공모전 가작 수상



종이인간 이야기 Paper Man | 김수진 | 2000, 4분 40초

한 장의 종이가 있다. 그 공간에서 종이인간이 잘려 나옴, 그 반지르는 다른 모습의 종이인간이 존재하게 된다. 둘은 물질이 개입되면서 싸우고 서로를 파괴하지만 결국 하나의 존재임을,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차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종이인 매체를 이용해서 쉽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표현한 영화.



July & Betty | 금교은·김효숙·노은미·류미영·박진숙·이희문·조주난·정운경 | 2002, 7분 23초

무대에서 춤을 추는 줄인형 July는 줄도 없이 춤을 추는 Betty를 보고 부러워한다. 자신도 줄이 없으면 춤을 더 잘 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July 앞에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July의 줄을 끊어 버려 꼼짝할 수 없게 되는데...
2002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애니메이션부문
2002 서울 넷 페스티벌 경쟁부문



Fly2 the Dream | 류경진·이미경 | 2002, 4분 3초

고층 아파트의 한 베란다에 유난히 귀가 큰 애완용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다. 하나뿐인 친구 비둘기를 통해 바깥 세상에 관한 동경을 갖게 된 토끼는 비둘기가 오지 않자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토끼는 비둘기와 자신의 차이점을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의 커다란 귀와 비둘기의 날개는 같다고 결론 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베란다의 창틀 틈으로 뛰어 내리는데, 갇힌 현대인의 삶과 일상화된 자유의 몸부림을 그린 애니메이션.



참나무 An Oak story | 김미경 | 2002, 5분 45초

한 소녀가 나비를 따라 숲 속으로 돌아와 한 참나무에 이른다. 나비는 참나무 근처에서 사라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참나무 주위에 나타난다. 황새가 소녀의 머리 위를 날고 수많은 날다람쥐들이 한꺼번에 비행하고, 아생화로 가득한 들판이 나무 주위를 돈다. 그러나 소녀는 나무에 기대어 잠들어 있고 많은 일이 벌어진 후에 나비 한 마리가 소녀를 깨운다. 그리고 소녀는 집으로, 혹은 다른 어딘가로 돌아간다. 참나무 한 그루에 40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경이로움을 소녀는 알까?



aRe yOu theRe? | 이영현 | 2002, 7분

우주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만든 로봇을 통해 자신의 창조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물음의 답을 찾아 나선다.
Rhode Isl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02)
동아 LG 만화국제만화/게임페스티벌(2002)
Silver Lake Film Festival(2002)
Angelus Film Festival(2002)
Woodstock Film Festival(2002)
Los Angeles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2002)
2등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Video Category) (2002, 미국)
3등 Direct TV Level 13 net (2002, 미국)



상자 속의 아이 Child in Box | 오진희 | 2002, 6분 14초

상자 속에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는 장난감 비행기만이 유일한 친구이다. 외로운 아이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내면에서 자라나는 상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상상의 상자 속에선 씨앗이 터져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아이는 나무와 교감을 나눈다. 그러나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의 씨앗은 현실 속에서 부정되고...
2003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애니메이션 부문
2002 서울 넷 페스티벌 상영
K-TV 시민영상축전 우수상 (2002)



퍼스 포페 False Poupee | 린다 김 Linda Kim | 2000, 6분 47초

프랑스의 한스 벨머(Hans Belmer)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에 삶을 부여하고 자신의 경계선과 자각의식 속의 탈피, 그리고 자기 동일성 속의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를 그런 단편애니메이션 퍼스 포페는 거짓된 인형이라는 뜻이다.
2000 UCLA 학생영화제 The Shurtakes Student Film Festival 최우수상
2001 대한민국영상문화대전 편집상, 작품상
레스페스트 2001 관객상
인디포럼 2002 공식상영작



바보 흥두 이야기 Hong-Du, The Foolish Boy | 김마선 | 2000, 5분

언제나 다른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놀림받지만 파스한 마음을 지닌 흥두와 그 주변 사람들에 얽힌 이야기.



Too happy to die | 최진영 | 2002 | 13'40"

Happy와 Die, 그 아이러니한 만남. 주인공 '나'는 정겹게 술을 마실 친구들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부모님, 운명적 만남 그리고 예술에 몰두하여 자신의 삶을 돌리본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고마워하고 그것들을 삶의 의미라 정의한다. 그러나 '나' 예전 그런 Happy와 동시에 Die가 찾아온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지만 혼자 느끼며 사는 것이기도 하다.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2002)

제6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2002)

2002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 단편경쟁부문 우수상(2002)



이효종씨 가족의 저녁식사 | 정희성 | 2003 | 14"

한 중년 여자가 창을 보고 있다. 더운 여름 그녀가 들고 있는 집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오래된 한옥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2003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제4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영화 비평가 주간 초청(2003)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단편경쟁부문(2003)



마친 김치 | 김지미 | 2003 | 19"

한 소녀가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엄마가 죽었다고 단정짓는다. 소녀를 데리고 살인사건 현장에서 사신 확인을 하고, 사람을 찾는 진단지를 뿌리고, 술을 마시며 밤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다.

2003 제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전

2003 제4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영화 비평가 주간 상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졸업작품



저 멀리 여름 숲은 | 오정연 | 2003 | 15'40"

윤수는 들은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길을 잘못 찾고, 이사할 집 대문은 잠겨있고, 계약한 방에는 누군가 살고 있고, 아삭한 트레키사는 빨리 짐을 풀라고 욕박지르는 등 상황은 점점 꼬이기만 한다. 그녀의 독립은 가능한 것인가? 여성의 독립과 그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



탐폰 설명서 | 성세론 | 2001 | 13'40"

'탐폰으로만 쓰라는 법이 있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여성과 레즈비언의 성적 욕망에 대한 즐거운 상상, 또 고정관념에 대한 감독의 유쾌한 도전이다. '탐폰 콤플렉스'라는 제목의 사용설명서를 영상으로 재창조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크게 세가지로 탐폰의 사용 용도를 설명한다. 첫째가 생리대로써의 용도, 두 번째가 마스터베이션을 위한 도구, 세 번째가 레즈비언의 섹스도구로서의 사용법이다.

2001년 한국독립단편영화제 단편부문 우수작품상

새움터?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희망과 삶을 이야기 하는 현/장/단/체입니다

1996년 11월 동두천에서 문을 연 새움터는 7백여명 여성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도움과 지지를 요청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현장 단체로 각본 술을 내추어왔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위기에 개입하여 상담과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의 부당한 편견 개성, 사회적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 국제적 성매매 고리를 끊기 위한 연대활동에 이르는 새움터의 모든 활동과 운동 방향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새움이 되는 곳...새움터

종란철에 들어 새움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키우고 돌아오는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는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언니들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안으로써가 아닌 언니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희망은 그래서 자라지 않고 더욱 든실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김미영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깊어 보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분류'했다. 이는 이 계급과 저 계급, 이 집단과 저 집단의 차이를 중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적어도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특질을 가졌다고 묶어 버린 것이기도 하다.

나는 개인을 집단으로 묶는 것보다 개인을 그대로 놔두는 편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 검증된 방법인 분류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불행히도 남성이다. 몇몇 남성들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자. (이 때 여성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할 필요는 없다. 이 조사를 위해서 자신을 계몽국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옳은 것인지 토론해 보자' 라는 글을 쓴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것을 굳이 논란의 대상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꼭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조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자가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남성의 반응은 어떨까? 아, 예상대로다. 화를 낸다. 여자들은 안 된단다. 그가 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적어 봐야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칠 테니까 생략하기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내 보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믿고 있는 듯한 한 사람이 조금 다른 답변을 하였다. 여성의 권리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남, 아니 양성평등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성주의라고 여성의 권리만을 외치는 것은 좌측하지만 편협한 생각입니다. 좀 더 넓게 바라봐요. 이번에 어느 시 공무원 채용 시험 전체 합격자의 63%가 여성이라고요. 이 또한 남성에게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조사 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화내는 집단, 둘째는 양성평등 집단, 셋째는 기어코 너무 미미한 수치라 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각 집단별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먼저 첫 번째 집단 불행히도 나는 이 집단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수 십 년간 살아온 방식을 내가 한 순간에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 집단에게도 희망은 있다. 최근에 개발된 '정신구조 전면 개조' 프로그램은 이 집단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 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다. 다만 이 집단은 자신이 진보적이라는 데에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하자. 이 집단은 이미

여러 가지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를 통해 여성의 권리에 대해 자신들이 무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심중팔구 나이 어린 여성을 훈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집단에게 내가 권해주고 싶은 것은 출처가 믿음직하면서도 쉬운 자료이다. 더 이상 이 집단의 평창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이 집단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그것 바로 <왔다!>이다. <왔다!>는 물론 완벽한 교재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성평등, 인권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인지를 인지시킬 수 있는 만화이다.

<왔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웃기는 만화이다. 만화가 김미영 씨는 <왔다!> 외에도 워크에 <이노마>, <빌 테면 빌어봐> 등을 연재한 바 있고 현재는 신문에 <기생충>이라는 만화도 연재하고 있다. <왔다!>는 극화체이지만 나머지 연재작들은 모두 대략 3등신의 주인공을 내세운 개그체의 만화로서 풍자를 그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김미영 씨는 만화는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그 내용에는 뼈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왔다!>는 기본적으로 학원물이다.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바로 <왔다!>의 사회적 배경이 모계사회라는 것. 작가는 김지카? 세상이 모계사회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 1권 처음에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옛날 여성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오게 된 건 농사

를 지으면서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도구라는 것이 발달할수록 힘의 필요성은 적어지고 힘이 필요한 일 또한 기피하는 가운데 남성들은 힘을 잃고 문란해진 성으로 어머니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나 아버지는 일기 힘들어 남성의 성씨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모계사회가 왔다' 라고 그러니까 이 만화의 제목은 <모계사회>가 왔다!인 셈이다. 그런 아주 가까운 미래의 한국에서 네 주인공 - 영자, 현민, 만수, 지현 - 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아주 코믹하게 그린 만화가 <왔다!>이다.

<이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을 집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왔다!>의 세계에서 바뀐 것은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이다. 영자는 축구에서 골을 넣은 후에 옷을 벗고 골 세레모니를 한다. 현민이는 <장자는 숲 속의 왕자> 따위의 책을 읽으며 자랐는지 자신을 구해 줄 멋진 공주님을 기다린다. 지현이는 청소를 안 하고 장난이나 치다가 화내는 만수에게 남자 주제에 왜 이렇게 나대라고 소리치고 만수는 단박 친구 현민이와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간다. 반정물론 여학생은 벗은 남자 사진이 잔뜩 들어 있는 짐지를 가방에 한 가득 넣고 다니고, 남학생들은 '여자는 다 늑대'를 외친다.

앞 문단에서 혹시 이상함을 느꼈다면, 그리고 앞에 열거된 네 주인공 중 누가 남지고 누가 여인지 헷갈렸다면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도 흔치 않지만) 저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사소한 구석부터 성역할이 사실상 정해져 있으며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도못해 학교 다닐 때 청소 안 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남아 있어도 청소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도 남학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134kg의 짐을 진 사람과 7kg의 짐을 진 사람을 같은 출발점에 세워놓

고 달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찬가지로 실시 같은 출발점에 세워 놓았다고 해도 여성과 남성의 달리는 걸코 공평하지 않다. 먼저 그녀의 짐을 줄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그녀의 출발점을 더 앞으로 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달리기에서 더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주의를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여성을 불공평한 달리기로 내모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왔다!>가 이 집단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여성의 등에는 134kg의

짐이 얹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도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을 함께 권한다. 책을 읽는 내내 누가 여성이고 누가 남성인지 헷갈릴 것이다. 혹시 책의 마지막 챕터를 읽을 때까지도 주인공들의 성별을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화책인 <왔다!>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딸들>은 소설책으로서 주인공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왔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제대로 된 성교육 효과다. <왔다!>는 여성과 남성의 두바퀴 성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지'를 직접 말해주기도 한다. 가령 2003년 10월 1일자 워크 연재물에서는 여학생들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등의 발

언에 대해 남학생들이 '그건 사람을 죽여 놓고서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며 직접적인 논박을 하고 나섰다.

이상이 내가 조사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다. <왔다!>는 현재 2권까지 서울문화사에서 출판되었으며 김지카 씨에 계속 연재중이다.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점에서 구하시기 바란다. 비록 이 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M병 환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해 본다.

by_몽



'러브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한 수식어는 천편 일률적이다. 그 수식어들은 바쁜 집이 그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편안히, 열심히 살 수 있는 '맞춤' 공간이며, 이전의 공간에서의 모든 불편이 이 한번의 공사로 사라질 수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다. 이 말들로 '러브 하우스'는 그 가족들이 앞으로 꾸려나갈 할 살까지 설계해 준다. 열심히 살게요, 공부 열심히 해요, 등의 다짐은 '러브 하우스'의 중요한 포맷 중 하나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이러한 도전에 보답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려 한다. 방송국에 몰릴 막대한 상업 자본의 매우 일부를 떼어주면서 그들은 (사실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인간적인 말로 포장한 것일 뿐인) 가정의 화목, (자본주의적 인간행에게 요구되는) 성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사실 '러브 하우스'의 문제 공간들은 압축적 자본주의 성장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IMF 이후 가시화된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수준의 빈부/도농 격차, 그리고 사회보장의 부재라는 문제와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브 하우스'는 이들을 탈역사화, 탈맥락화 시키면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 보여주려 한다. 개별 가족들의 극대화된 '비참'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고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라는 말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자기 개인에게로 돌리게 된다.

제가 이 코너에서 보여주는 '재깍'들이 가지고 있는 때혹적인 장치들은 나의 집에 가능한 인테리어들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나도 가지고 살다는 바람, 저런 것들은 있어야 편하고 살만하겠다는 욕구. 하지만 그 욕구에 따라 만들어질 집이 그 정도의 부자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는 검증된 바 없다. 사실 이전에는 잘 살던 집이 갑자기 초라해 질 수 있다면, 그것은 '러브 하우스'가 만들어낸 허위욕구일 것이다.



과연 러브하우스에서 그들은 행복할까

아빠 엄마만을 위한 아늑한 침실, 사춘기 소녀만을 위한 아기자기한 공간,
어머니가 좋아할 부엌의 수납 공간,
공부를 즐겁게 해줄 넓은 책상...

글_황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러브 하우스'와 시기를 같이 하여 불고 있는 리모델링 열풍과 '러브 하우스'는 정말 무관한 것일까? 리모델링 시장, 혹은 인테리어 시장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상품들을 잘 조합하여 새로운 집을 꾸민 것이 '러브 하우스'라면 '러브 하우스'가 방송되는 지금, 우리는 그 시장이 만들어내는 욕구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러브 하우스'는 그 자체로 돈을 벌여주는 상품이며, 이와 연관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동시에 이는 IMF 이후 더욱 선명해진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순응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고집내내면서 가부장적 가치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노동 사회의 명제로 지금 우리의 불행함을 설명하려 들기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가는 장애인의 슬프고 절연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사지가 멀쩡한 당신은 왜 불행하다고 되물으며 자본주의적인 인간행이 되라고 촉구한다. 이 모든 의도가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면죄부와 휴머니즘의 껍데기로 가려지면서, 우리는 그저 이 문화 상품을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수납공간이 넉넉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의 화목을 지켜갈 것이고, 아버지도 역시 성실하고 정직한 가장이자 노동자일 것이며, 사춘기 소녀인 딸은 공주같이 꾸며진 자기의 방에서 꿈을 키울 것이다. 바로 그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그들은 행복할까? 이제 그들의 집은 몰라보게 따뜻하고 아늑해졌으니, 그들이 접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러브 하우스 안에서 재충전을 하고 훨씬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쩌 되었든 그들을 고단하게 하던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된 듯 보이니까.

하지만 새로운 부엌이 여전히 어머니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 혹은 사춘기 소녀가 공주 같은 방 안에서 정말 공주가 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면, 또한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로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면, 그 집에서 도대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삶의 고단함을 해결해주는 집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인위적인가.

'러브 하우스'와 시기를 같이 하여 불고 있는 리모델링 열풍과 '러브 하우스'는 정말 무관한 것일까? 리모델링 시장, 혹은 인테리어 시장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상품들을 잘 조합하여 새로운 집을 꾸민 것이 '러브 하우스'라면 '러브 하우스'가 방송되는 지금, 우리는 그 시장이 만들어내는 욕구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벼운 농담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남자들의 성적 농담, 그 곳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어디서건 들을 수 있는 남자들의 성적 농담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남짓 그 동안 학교는 늘 그렇듯 개강파티에, 동아리 모임에 개강 인사를 나누느라 한바탕 시끌벅적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매년 반복되는 지겨운 풍경에 반가움도 채 나누지 못하고 그만 씁쓸해지고 말았다. 간만에 만난 이들이 술자리에서, 과 방에서 스치는 인사에는, 으레 외모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머리를 잘랐거나, 못 보던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새내기 들어오는 3월이면 더욱 활기를 띤다. 과방의 남자선배들은 농담따먹기를 하듯 그녀들의 외모에 대한 '품평'을 늘어놓곤 했다. "개는 허리가 너무 굵어" "이번에 들어온 애 중에는 누가 몸매가 제일 죽이더라" "개는 가슴도 없으면서 그런 옷을 입네"...

한 번은 남자동기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우리 반에 누가 제일 잘 빠진 여자' 인지 순위를 매기면서 놀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한술 더 떠서 누가 1등이었는데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던 듯 하다. 순간, 내가 그런 품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몹시 불쾌해 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들에게 '성적 대상화' 되어 안주거리가 되어 버린 그 기분이란, 그 술 자리에는 여자 동기나 여자 선배는 없었다고 했다. 과 방에서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를 놓고 몸매가 어찌고, 다리가 어찌고 할 때도 신이 난 건 그 '남자들' 뿐이었다. 그런 농담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주의 모임을 하면서 만난 한 친구는 자기 역시 새내기 시절, 치마를 입고 동아리방에 갈 때면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그런 날이면 동아리방은 하루종일 '치마' 얘기 뿐이었고, 남자 선배들은 동아리 여자들을 쫓 나열하며 누구는 어떤 치마가 어울린다는 등의 품평을 자기네들끼리 늘어놓곤 했었다. 술자리에서건 동아리방에서건 이런 성적 농담이 나올 때면 여자 후배들은 누구 할 거 없이 입을 다물고 말게 된다는 말과 함께, 대놓고 뭐라 말할 수는 없다해도 그 상황이 불편한 것만은 분명했다. 그 웃음이 내가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도, 내가 같이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나 역시 언젠고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곤란한 농담의 '대상'으로서의 나는 이미 그들의 동료나 선후배가 아닌, 성애화된 자로서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농담에는 여성의 존재가 없다. 성적 대상화되고, '보여지는 자'로서의 여성만 있을 뿐. 과방 선배들이 나눈 농담, 내 남자 동기들이 했던 순위 매기기 놀이 속에서도 여학생들은 동강동강난 몸이 되어버린 채 그 대화 속을 뽕뽕 달아 다니고 있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농담이 당사자에게 큰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도, 대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만 '농담'도 이해 못하는 꼴판판 여성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술자리에서 눈살이라도 찌푸릴라치면 "왜 이것도 성희롱이냐" "어디 무서워서 농담이냐 하겠어" "총여에 고발해야겠네"라고 대꾸하며 입을 막아 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성폭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죽일 놈이지만, 자신만은 가해자가 될 리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성폭력이란 아마도 신체적 외상을 동반하는 (낮선 이에 의한) 성폭행과 같은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성폭력 가해자란 태생부터가 뭔가 나쁜 껍을 가진 나와는 다른 나쁜 놈 일 것이다. 그래서 한사코 그들은 자신의 성적 농담은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으며,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변하고 또 강변한다.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성폭력은 단지 성폭행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크나큰 범죄임에는 틀림없지만, 성폭력은 그 공동체의 문화, 일상적인 삶, 바로 내 생활 환경 내의 오만가지 일들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다. '술에 취해서 여자 후배의 몸을 만지는 것, 그냥 웃자고' 남성들끼리만 웃을 수 있는 성적 농담을 내뱉는 것, 안 듣는 자리라고 같은 과 여자동기의 연애와 관련한 뒷담을 늘어놓는 것... 혹자들에게는 작고 사소하게만 보이는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성폭력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 생기는 불행한 범죄로 남아 있지 않다. 우리 일상이 성폭력적

이며, 그 일상 안에 있는 문화가 성폭력적이며, 누구나 성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다른 일상적 문화와 마찬가지로, 어디서건 걸쭉한 '성적 농담'들을 내뱉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을 뿌리깊게 가지고 있다면 그 안의 구성원인 우리도 그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남성적 시선을 성찰하지 못하고 내뱉는 '농담'들이 결국 여성을 언제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만들며, 여성들을 그 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반복하게 만든다. 의도하건 그렇지 않았건, 그들의 '성적 농담'은 그렇게 그녀들을 소외시킨다. 그래서 그 성적 농담은 언어적 성폭력이 된다.

성적 이야기는 원천봉쇄?

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대상화하는 것은 다르다

남성들의 '성적 농담'을 문제삼으면 늘 여성주의자=도덕주의자라는 오해를 면치 못한다. 아예 성적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말이나 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물론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성을 대상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성적 농담이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이것이 여성들을 대상화함으로써 끊임없이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남성중심적 문화를 재생산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타자화된 시선,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야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 남성들이 웃자고 내뱉는 말에, 술 한 잔 걸친 김에 나온 농담에 여성들의 자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그 안에 속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폭력으로부터 다가가는 '성적 농담'과 이를 당연시 만드는 남성적 문화를 털어 내는 '깊은 성찰'을 당부한다. 언제까지 '농담일 뿐'이라고 자신을 억지스레 변호 할텐가.

* 이 글은 겨울간지 '새이' 보이는 창에 기고했던 글
(성자들의 성적 농담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2003 여성제

제 6회 여성제 기획단
일/曜/만/波 제 15대 총여학생회
www.yousei.ac.kr/~ysfem
feminist@yousei.ac.kr 02)2123-3545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머지않은 이야기

■ 첫째 날... 9월 29일(월)

개막식+퍼포먼스 오후 12시, 학생회관 앞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족/민족/국가주의의 구조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 강연: 정희진('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자)

■ 둘째 날... 9월 30일(화)

▶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언니'들의 목소리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 강연: 김상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 셋째 날... 10월 1일(수)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즺만들기

오후 2시~5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 성별화된 폭력: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오후 6시, 외솔관 110호 / 강연: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넷째 날... 10월 2일(목)

'어느 멋진' 영화제 (애니메이션/단편영화) 오후 6시 위당관 B09호